

방송에서 나타난 장애인권의 현실과 권리확보를 위한 토론회

장애우민화센터

서울시 영등포구 당산동 6가 300번지 덕승빌딩 7층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문화센터

www.cowalk.org / culture@cowalk.org

- 일 시 : 2004년 12월 15일 수요일 15:00~18:00
- 장 소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교육장
- 주 최 :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문화센터(<http://cowalk.org>)

* 이 토론회는 방송위원회(www.kbc.go.kr) 지원사업입니다.

방송에서 나타난 장애인권의 현실과 권리확보를 위한 토론회

- 일 시 : 2004년 12월 15일 수요일 15:00~18:00
- 장 소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교육장
- 주 최 :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문화센터(<http://cowalk.org>)

토론회 자료집 순서

I. 토론회 개요

p2 토론회를 열면서

II. 장애우방송모니터단 소개

p4 장애우방송모니터단 활동

III. 주제발제 : 장애인의 시청자 주권찾기, 모니터 운동의 전망

p7 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가 전개해 온 여성주의적 미디어 운동의 성과와 과제

- 강혜란 (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사무국장)

p26 장애왜곡 및 편파보도에 대한 장애계의 대응과 언론의 활용

- 박숙경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인권국 팀장)

V. 종합토론 : 장애인의 눈으로 방송 다시보기

p43 장애인권적 관점에서 바라본 방송 : 모니터링 사례를 중심으로

p43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행 총평

- 이태준(장애우방송모니터단)

p47 개편이후의 사랑의 가족

- 김주영(장애우방송모니터단)

p55 외국과 우리나라 프로그램에서의 장애인을 바라보는 시선의 차이

- 백수정 (서울YMCA 어린이영상문화연구회, 미디어교육팀 팀장)

p60 장애인관련 프로그램의 현황 및 문제점

- 박웅진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 연구원)

I. 토론회 개요

방송에서 나타난 장애인권의 현실과 권리확보를 위한 토론회

■ 방송에 나타나는 장애인권 사례를 모니터링하여 방송에서 장애 인권에 대한 의식을 높이고 장애운동에서 시청자 운동의 방향 및 실천방안을 고민하고자 이번 토론회 자리를 마련합니다.

■ 토론회 순서

[1부] 장애인 시청자 주권 찾기, 모니터운동의 전망	
시 간	내 용
15:00~15:10	인사말
15:10~15:30	【주제발제1】 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가 전개해 온 여성주의적 미디어 운동의 성과와 과제 / 강혜란 (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15:30~15:50	【주제발제2】 장애왜곡 및 편파보도에 대한 장애계의 대응과 언론의 활용 / 박숙경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인권국)
15:50~16:00	질의 및 응답
16:00~16:10	쉬는 시간
[2부] 장애인의 눈으로 방송 다시 보기	
시 간	내 용
16:10~16:20	【주제발제3】 장애인권적 관점에서 바라본 방송 - SBS의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여행", KBS의 "사랑의 가족" 사례를 바탕으로 / 이태준(장애우방송모니터단), 김주영(장애우방송모니터단)
16:20~17:00	【종합토론】 종합토론 - 백수정(서울YMCA어린이영상문화연구회) - 박웅진(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 - 김정렬(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소장)

※ 수화통역사 장진석님, 김홍남님께서 함께해주십니다.

II. 장애우방송모니터단 소개

○ 취지

: 장애 왜곡 내지 편견을 조장하는 방송을 비판하고 주체적이고 당당한 장애인의 상을 조명하는 방송, 모든 장애인이 모든 방송을 볼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송, 일반 프로그램에서 장애인을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고, 실제로 장애인 출연자와 시청자, 관람객을 적극적으로 유치하는 방송으로 변화하도록 인권침해로의 대응, 방송접근권 확보, 방송관련정책 개선 및 제안, 방송관련 인력으로서의 진출 등 4가지 축을 지향하며 모니터 활동을 전개하고자 한다.

○ 장애우방송모니터단 운영

- 매주 1회 모임이 운영되고 있으며 장애인 7명, 비장애인 3명 총 10명이 현재 활동하고 있다.
- 모니터 전문인력(백수정/YMCA 어린이영상문화연구회 미디어교육 팀장) 결합하여 밀도높은 모니터 보고서 작성 훈련 중이다.
- 아직, 모니터단이 모니터링 대상 프로가 장애 대상 프로에 한정되어 있으며, 원래 지향점과 실제로 모니터단의 역량 간의 차이가 여전히 남아있다.
- 그러나 모니터단의 힘은 장애우방송모니터단으로서 장애계에서 유일하게 활동하는 회원조직이며, 4년간 지속적으로 모니터 활동을 하면서 매년 보고서를 결과물로 쌓아온 근성이라 볼 수 있다.

○ 연혁

년도	내용
200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송모니터 교육강좌 1회 · 모니터단 모임 운영(사랑의 가족, 희망풍경 모니터) · “장애인복지방송을 위한 현황과 과제” 방송세미나
200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송모니터 교육강좌 1회 · 모니터단 모임 운영(사랑의 가족, 희망풍경, 사랑의 리퀘스트 모니터) · 특강 2회 (주제1: 디지털방송과 복지방송의 발전방향/주제2: 방송평론, 비평문, 보고서 작성방법)
200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송모니터 교육강좌 2회 · 모니터단 모임 운영 (장애인의 날 특집방송, 세상에서가장아름다운여행 모니터) · 보수교육 2회 (주제1: 방송법과 인권침해에 따른 법적 대응, 주제2: 퍼블릭액세스)
200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월 “장애인과 언론” 특집 《내일은 푸른하늘》 라디오 방송 출연 · 4월 SBS 옴부즈맨 프로그램 출연 “세상에서가장아름다운여행 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 모니터 전문인력이 결합한 모니터단 운영 (세상에서가장아름다운여행, 사랑의 가족 모니터) · 현 모니터 관련 토론회 준비중

Ⅲ. 주제발제

장애인 시청자 주권 찾기, 모니터운동의 전망

- 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가 전개해 온 여성주의적 미디어 운동의 성과와 과제
- 강혜란(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사무국장)

- 장애왜곡 및 편파보도에 대한 장애계의 대응과 언론의 활용
- 박숙경(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인권국 팀장)

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가 전개해 온 여성주의적 미디어운동의 성과와 과제

강혜란 (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사무국장)

1. 서문

방송은 우리 사회를 반영하지만 다시 그 사회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매체다. 특히 급속한 뉴미디어의 출현 속에서도 재방삼방(再放三放)의 시스템 구축을 통해 그 영향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는 지상파 방송의 위력은 단 1%의 시청률로도 40만을 설득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것이다. 때문에 성차별의 장기적 해소를 고민하는 많은 여성운동가들은 이러한 방송이 보여주는 프로그램의 성차별성에 많은 관심을 보여 왔고, 그 효과에 주목해왔다.

이러한 활동은 2000년 불법적으로 유포된 백지영비디오사건을 일방적으로 유포자의 편에서 보도한 SBS '한밤의TV연예'에 대한 공동소송, 2002년 5월 성폭행 당한 후 살해된 여대생들의 사고원인을 밤거리에서 모르는 남자들의 차를 겁없이 타는 문화 때문이라고 보도한 MBC '뉴스데스크'의 '겁없이탄다' 라는 기사에 대한 공동대응, 2002년 12월 성폭행을 희화화하여 강간을 미화한 SBS '깜짝스토리랜드'에 대한 공동대응과 프로그램 폐지, 여성을 비하하고 여성의 신체를 대상으로 선정적이고 도구화된 농담을 일삼은 '개그콘서트'에 대한 '최악의프로그램' 선

정 등 점차 보다 신속하고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양상이다.

그러나 이것은 문제가 극단적으로 나타나는 몇몇 프로그램에 대한 대응으로, 지속적이고 누적적인 효과를 가지는 '성역할 고정관념'이나 '성상품화를 통한 여성의 대상화'를 근본적으로 배제해나가는 단계까지는 상당한 시간을 필요로 한다. 이는 근본적으로 우리 사회의 차별 감수성이 변화되지 않으면 실현되기 어려운 과제로 이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과 고민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차별'이란 인간의 잠재적 가능성을 다른 사람이 저지하는 행위를 말한다. 사회적 개념으로는 어떤 집단 또는 거기에 속하는 개인이 다른 주요한 집단으로부터 사회적으로 기피·배제당하여 불평등·불이익을 받는 것을 말한다. 2003년 국가인권위원회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우리 사회에는 여전히 많은 차별이 남아있다고 한다. 장애·학력이나 학벌·성별·동성애·전과·인종이나 민족·비정규·사상·가족관계·출신지역·외모 등 16가지 기본 차별을 포함해 무수한 차별이 존재한다. 이러한 차별을 완화시키기 위해 다양한 형태의 법과 제도들이 마련되고 있으나, 복잡적이고 중층화되는 차별요인들을 완전히 해소해나가기에는 역부족이라는 것이다. 때문에 무엇보다도 이를 실질적으로 극복해갈 수 있는 시민의식의 성장, 인권 감수성의 확대가 절실한 상황이다.

'개그맨 홍석천씨의 커밍아웃(coming out)'이나 '가수 하리수씨의 연예계 진출' 등은 '동성애자'나 '트렌스 젠더'에 대한 우리 사회의 감수성을 결정적으로 변화시키는 계기를 만들어 주었다. 또 '이주노동자문제'를 다루었던 MBC의 '느낌표'는 우리 사회의 뿌리 깊은 '인종주의' '백인중심주의'를 극복하는 실질적 계기를 만들어 주었다. 우리가 대중매체 그중에서도 지상파방송에 주목하는 이유는 바로 이러한 점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회변화에 결정적 영향을 가질 수 있는 방송제작자들의 차별 감수성은 아직 낮은 수준이다.

그러한 배경에는 방송제작자들의 실질적 구성의 문제가 존재한다. 어느 사회나 대부분의 매체 종사자들은 '고학력'·'중산층 이상'·'비장애인'·'남성'이라는 특성을 갖는다. 우리 사회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아 이러한 특성을 가진 종사자의 수가 절대적이다. 때문에 이렇게 획일화되고 지배적 위치에 놓여있는 구성원들이 소외된 다수의 시선을 반영한다는 게 현실적으로는 매우 어렵다는 것이다. 때문에 이를 적극적으로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노력의 하나로 시선을 바꿔주는 소외계층의 방송모니터링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띄고 있다.

2 본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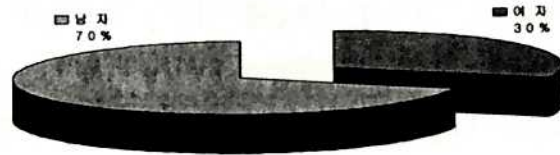
(1) 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의 출발점 - 여성의 시선으로 본 방송프로그램 안의 성차별

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가 2003년 5월 12일부터 5월 25일까지 총 2주간 주시청시간대 지상파 방송 4개 채널에서 방송되는 모든 프로그램의 등장인물의 외형과 그 인물의 역할과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모니터한 보고서¹⁾에 따르면, TV는 기본적으로 현실을 재구성함에 있어 남녀의 양적 균형을 유지하지 못하고 있다.

시청자가 가장 집중적으로 접근하게 되는 이 시간대에 출연한 전체 분석대상인물을 살펴보면, 출연자는 총 7,427명으로 이 중 남자가 5,165명(69.55%) 여자가 2,262명(30.45%)이었다. 즉, 주시청시간대 지상파방송 프로그램에 등장하는 인물 10명 중 7명은 남자, 3명은 여자로 남자인물이 여자에 비해 두 배 이상 자주 등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²⁾.

1) 2003, 한국여성민우회 '텔레비전 인물의 외형과 역할에 관한 보고서'

2) 2001년 통계청에서 발표한 「장래인구추계」 자료에 의하면 2003년 우리나라 전체 인구는 47,925천명으



< 전체등장인물의 남녀 비율 >

이것은 모든 장르의 프로그램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났는데 여자에 비해 남자 인물이 더 많이 등장하고 있었다. 남녀 등장인물 성비의 차가 가장 크게 나타난 장르는 '뉴스/보도/시사' 프로그램으로, 10명 중 '8명은 남자·2명은 여자'의 비율을 나타냈다. 반면 성비의 차가 가장 적게 나타난 '드라마'의 경우, 남녀 등장인물의 성비에서 남자 등장인물이 54.4%, 여자 등장인물 45.6%로 비교적 근소한 차이를 보여준다.

	뉴스/보도/시사	드라마	버라이어티쇼/오락	다큐멘터리/교양
남자	2,768명(81.4%)	1,051명(54.4%)	1,063명(65%)	283명(61.5%)
여자	633명(18.6%)	882명(45.6%)	570명(34.9%)	177명(38.4%)
합계	3,401명(100%)	1,933명(100%)	1,633명(100%)	460명(100%)

<프로그램 장르별 남녀 등장인물의 성비>

이는 가공의 현실을 구성하는 장르인 드라마에 비해 현실을 직접적으로 반영한다고 느껴지는 보도영역에서 성비 불균형이 더욱 심각함을 알 수 있게 해준다. 이는 대다수 사회구성원들에게 남녀의 차별적인 사회적 지위를 재인식시키는 효과로 이어지고 결국 성차별적 고정관념을 그대로 유지 재생산하게 하는 하나의

로 이중 남자는 24,126천명, 여자는 23,799명으로 남자 수가 많기는 하지만 그 비율의 차이는 텔레비전 현실 속의 남녀성비에 비해 훨씬 작다.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다음으로 질적 측면에서 방송이 재생산하고 있는 성차별적 이데올로기를 살펴 보자. 이는 크게 '성역할 고정관념'과 '성적 대상화 또는 상품화'의 문제로 집약될 수 있다.

'성역할 고정관념'이란 '여성다움'과 '남성다움'을 임의적으로 구분하여 여성이 적극적이고 독립적인 존재로서 정체성(gender identity)을 획득하는데 장애요인을 발생시키는 이데올로기다. 예컨대 '남성은 강함·여성은 연약함' '남성은 이성·여성은 감성' '남성은 적극·여성은 소극' '남성은 능동·여성은 수동' '남성은 능력·여성은 외모' 등과 같이 이분법적인 형태로 정형화된다. 이것은 이러한 이분법적인 구도가 사랑과 행복을 가져다줄 것이라는 '여성성의 신화(the myth of femininity)'로 이어져 여성의 열악한 지위와 성불평등한 현실을 유지하고 강화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성적 대상화 또는 상품화'는 남성의 시선에서 쾌락의 대상으로 형상화되는 여성의 섹슈얼리티(sexuality)를 통해 철저히 대상화된 여성의 몸을 재생산해내고, 스스로의 삶의 주인으로서 기능하는 여성의 몸이 아닌 '보여지는 존재'로서의 여성의 몸에 대한 고착화된 이데올로기를 제공한다.

이러한 핵심 요소들은 결국 여성들이 스스로의 자발적 선택에 의해 다양한 삶의 방식을 선택하게 하기보다는 가부장제 질서 속에 순응하게 만드는 이데올로기로 재생산된다.

그렇다면 이러한 내용이 반복적으로 재생산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는 우선 방송이 우리 사회를 일정하게 반영할 수밖에 없다는 것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우리 사회는 여전히 가부장제 질서 속에 놓여져 있다. 많은 여성들의 사회적 진출과 지위향상이 이루어지고 있다고는 하나, 대부분 '취업'과 '결혼'이라는 두 개의 관문을 통과하는 과정에서 가부장제 질서를 인정하고 이에 순응하는 것이 훨씬 안전한 선택이 되는 현실적 벽을 인식한다. 이처럼 공고한 가부장제 질서는 방송에 고스란히 반영되고 있는 것이다.

또 방송제작자들의 절대 다수가 남성들로 구성되어 있고 제작시스템 전반에서 남성들의 문화와 소통 방식·시선이 유지되고 있다는 점에서도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때문에 남녀에게 차별적인 가부장제 사회구조에 대한 민감한 문제의식과 개선의지를 가지기 어렵다. 이것은 생물학적으로 남성이냐가 여성이냐가 아닌 전체 시스템의 남성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여성제작자들의 경우도 이러한 문화와 시선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다음으로 '시청률지상주의'에 부응하기 위한 수단으로 즉각적 효과에 대한 기대 심리다. TV는 시청률에 대한 실질적 부담을 안고 있다. 이러한 현실은 안정적인 시청률을 확보하기 위해, 반인권적인 요소가 있어도 즉각적이고 말초적인 관심에 부응하는 표현들을 빈번히 사용하는 속성을 가지게 된다.

ex) 20세기에서 21세기까지 시청률극대화

(2) 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의 주요 성과

대부분의 시청자운동단체들의 출발이 그러하듯이 한국여성민우회의 미디어운동 또한 86년 시청료거부운동을 기점으로 권력에 대한 감시활동의 하나로 모니터링 소모임을 구성함으로써 출발되었다. 때문에 당시에는 성차별이라는 고유과제에 대한 관심보다는 정치적 편향에 초점을 맞춘 모니터링이 주류를 이루었다. 이러

한 활동은 90년대 후반 방송개혁국면을 맞으면서 미디어운동본부로 개편되고 소모임 중심의 활동을 벗어나게 된다. 미디어운동본부 발족 이후에는 적극적인 정책 개입활동, 채널 편성과 프로그램의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이슈파이팅으로 나아가게 된다. 그러한 과정의 성과를 몇 가지로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3)

○ 한국여성민우회의 미디어운동의 성과는 여성주의적 미디어운동 즉 성차별적 프로그램·편성·생산시스템에 대한 문제제기 뿐 아니라 미디어 영역 전반에 여성의 참여와 정책결정권을 확대하는 적극적인 주류화 전략을 통해 실현되고 있다는 점이 기존의 여성주의 미디어운동과는 차별성을 갖는다. 즉 90년대 후반부터 본격화된 방송개혁운동, 통합방송법 제정, 각종 뉴미디어관련 정책 수립, 어린이TV법 제정활동, 방송평가제·방송심의제의 현실화 노력, 방송평가위원회·시청자불만처리위원회를 비롯한 각종 위원회 참여, 시청자평가프로그램·시청자참여프로그램의 활성화를 위한 주도적 활동 등지상파 방송과 관련된 모든 영역에 개입하고 이를 주도적으로 풀어감으로써 전반적인 미디어운동 속에서 자기 위치를 확고히 하였다. 또 그 과정에서 성인지적(姓認知的) 관점을 널리 알려나감으로써 미디어종사자들의 성평등 의식에 대한 인식 변화를 꾀하였다. 이를 위해 초기부터 신문방송학과 교수들을 중심으로 한 '미디어포럼21'을 지속적으로 개최하였으며, 푸른미디어상을 비롯한 공익적 프로그램 시상활동을 지속적으로 벌여왔다.

20년동안 개혁해왔던 <아침마당> 프로그램 시청률위험 여자들 많았던 참여야한 극대해드 참여야한다 는 인식은 유행한다. <7기교세>

○ 방송사내 여성제작자 및 남성제작자와의 토론회 및 교육 실시를 통해 구조화 되어 있는 방송제작시스템의 성차별성을 문제제기하고 학계 및 제작자와의 연대의 기초를 닦아 나갔다. 토론회·워크샵·간담회 등이 진행되었고 사내 성차별에 대한 지원활동도 전개되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은 여성앵커의 역할에

3) 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의 구체적 활동은 뒷부분에 별첨.

대한 문제제기·승진승급에 있어서의 차별에 대한 문제제기 등이 있다. 학계와의 연계를 통한 공동토론회를 마련하여 활동가들과 연구자들의 네트워킹을 본격적으로 시도하였다.

○ 미스코리아 대회 지상파방송 중계 폐지 및 2004년 공영방송 KBS SKY의 생중계 저지, 성폭력을 희화화한 SBS '깜짝스토리랜드' 폐지, 여성의 전신성형을 오락프로그램의 소재로 활용한 SBS '쇼무한탈출'의 폐지, 백지영비디오사건에 대한 편파보도에 대한 SBS '한밤의TV연예'에 대한 공동소송, MBC뉴스의 '겉없이 탄다' 등 성차별적 뉴스에 대한 즉각적이고 조직적인 대응활동 등을 벌여 성차별적 프로그램에 대한 방송제작자들의 인식을 전환시키는 이슈파이팅을 적극적으로 전개하였다.

○ '개그콘서트' '아침마당' 등 기존의 사회에서 긍정적 평가를 받아왔던 프로그램들에 대한 성인지적 관점의 문제제기를 통해 선정성과 폭력성에만 초점을 맞춰온 모니터링의 흐름을 바꿔나가고 '여성의 눈으로 프로그램 평가하기'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나갔다. 또 이러한 이 과정에서 감수성 확대를 위한 사례집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단순 모니터링에서 벗어난 연단위의 사례집 발간 사업 개시하였다. 이는 2004년 '성평등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방송심의제도'에 대한 문제제기를 통해 보다 본격적인 단계로 나아가고 있다.

○ 기존의 시청자단체에서 시도하지 않았던 양적평가에 대한 새로운 시도를 통해 성차별의 구조적 요인에 대한 접근을 구체화했다. 이는 여성부가 후원하고 여성개발원이 주관한 '뉴스와 드라마·시트콤·방송광고에서의 성차별에 대한 양적 평가'와 자체적으로 실시하였던 '지상파방송의 주시청시간대 출연자분석과 관련한 보고서' 등이 있다. 특히 후자의 경우 결과보고를 통해 방송이 '젊고 예

쁘고 젊은 여성출연자'만을 방송프로그램 안에 담아냄으로서 성차별을 지속적으로 강화시키고 있다는 결과를 널리 알려 많은 사회적 주목을 받은 바 있다.

○ 초기에는 이러한 활동이 대부분 보고서의 형태를 띠고 있었으나 통합방송법 통과 이후에는 시청자평가프로그램과 미디어비평프로그램의 적극적 활용을 통해 이러한 내용의 확산을 시도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3명의 시청자평가원을 배출한 바 있다.

○ 장기적이고 누적적인 미디어의 부정적 효과를 개선하기 위한 미디어교육의 지속적인 실시하고 있다. '어린이방송학교'를 비롯해 '청소년미디어학교'의 개최하고, '출장!미디어교육'을 통한 찾아가는 미디어교육의 전형을 창출하였으며, 미디어바로보기 확산을 위한 초등미디어교육 500여회 실시하는 등 미디어교육 영역에서의 괄목할 만한 성과를 축적해나가고 있다. 이러한 활동은 주류미디어에 대한 비판과 감시활동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진다 해도 성차별적 요소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지는데는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이므로 별도의 관심이 필요한 영역이다.

○ KBS '열린채널', 시민방송 등에 대한 액세스 활동에 대한 적극적 참여하였다. 현재 KBS '열린채널'에는 성차별과 관련한 이슈를 세 작품, 시민방송에는 미디어교육 관련 10회 연속기획을 내보낸 바 있다.

- 이비 p가 쓴 것에 대해 문제제기하기보다는 만들려는 과정의 힘을 쏟아야 한다.
감시적인 문제제기하는 데.
- 다양한 사람들의 차이를 잘 드러낼수 있어야 한다.

3. 결론

이러한 성과 속에서 현재 한국여성민우회의 미디어운동은 보다 적극적인 의미의 성인지적 관점의 확산을 위해 매진하고 있다. 최근에 개최한 '성평등한 방송심의를 위한 새로운 모색' 토론회도 이러한 맥락에서 위치지워진 것이다. 남성과 여성의 감수성은 많은 차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 사회의 주류(남성)의 시선에서 좋은 프로그램과 나쁜 프로그램을 구분해오던 흐름에 새로운 전환을 시도하는 것이다. 제작자와 모니터 간에 가장 큰 공감은 이 모든 것이 의도적이기 보다는 모르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라는 점이다. 물론 이는 문제의 심각성과 폭력성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하여 무관심한 상태이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기도 하다.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제작자들의 성평등에 대한 구체적인 감수성을 확대하기 위한 제작자 교육의 정례화라고 보여진다. 또한 여성비하나 여성에 대한 폭력의 재현, 성의 상품화 사례를 추적하여 이를 사례로 제시해나가는 것도 또 하나의 예방효과를 가지리라 생각된다.

또한 제작시스템의 가부장적 문화를 개선하고 여성들의 참여를 확대해나가야 한다. 최근의 방송사의 채용과정에서 보여지고 있는 여성 채용의 확대는 이러한 점에서 매우 긍정적인 성과를 보여주고 있다.

또 자체심의를 보다 강도 높게 요구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방송위원회와 각 방송사의 심의관계자 기초모니터들의 감수성을 확대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특히 가정폭력·부부폭력·아동폭력·성폭력 등 전반적인 폭력의 재현을 최대한 자제하고, 이에 대한 여성적 시각을 강화하는 문제도 매우 시급하다.

구조적으로는 시청자위원회 및 시청자평가프로그램의 내용에 차별 또는 성차별과 관련한 업무를 전담하는 인력을 배치해 이러한 활동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도 필요하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모든 노력이 방송사·방송위원회의 차원에서 장기적이고 안정된 시스템으로 정착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별첨>

1998

- 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발족식
- 제1차 「미디어포럼21」 "통합방송법과 수용자주권" 개최
- 방송 관련 공공기구 내 여성할당 30% 요청활동
 - *방송위원회 및 각 공영방송사 이사회 등 방송정책을 결정짓는 주요자리에 여성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제안활동
- 98미디어교육 민우회 각 지부별로 미디어교육 실시
 - *남서여성민우회, 동북여성민우회, 성남여성민우회, 남부여성민우회 등
- 98미디어교육② "교육/모니터방법론과 미디어교육" 개최
- <미디어법률연구모임> 구성 및 활동
 - *수용자주권의 실질적 확보를 위한 활동의 하나로 방송법과 미디어 관련 법안을 집중 분석하고, 수용자운동의 새로운 방법론을 개발하고자 법률연구모임을 구성하였음. 98년에는 가족시청시간대, 프로그램등급제의 현실화방안을 집중 논의하였음.
- 98회원교육 "저패니메이션과 디즈니메이션, 다시 보기"
- 제2차 「미디어포럼21」 "다미디어다채널시대의 방송심의" 개최
- 98미디어교육③ 제5기 「어린이방송학교」 개최
- 98미디어교육④ 제1기 「청소년미디어학교」 개최
- 98미디어교육⑤ "엄마와 자녀가 함께 배우는 미디어" 개최/2회

- 제3차 「미디어포럼21」 “텔레비전 보도프로그램에 나타난 문제점과 성역할 개선방안” 개최
- 교재 「건강한 미디어 맑은 아이들」 발간
- 99미디어교육⑥ “출장!미디어교육”
 - *서울 및 수도권지역을 중심으로 중고등학교 학생들과 부녀회 모임, 지역내 시민단체모임, 성당 등 “출장!미디어교육”을 시행하기로 한 11월 이후 약 한 달 동안 12차례의 교육을 진행하였음.
- 제4차 「미디어포럼21」 “시청자평가프로그램! 누가 어떻게 만들 것인가?” 개최 :
 - *통합방송법 논의와 맞물려 시청자평가프로그램의 본래적 의미와 그 실현방안을 고민해 보는 자리였음. 지상파TV, 케이블TV, 독립제작사, 시청자운동단체, 방송학자들이 모두 참여하여 과연 시청자단체가 중심이 되어 시청자평가프로그램을 기획, 제작할 수 있는지 점검하고 논의하였음.
- 유해미디어감시를 위한 「푸른가족푸른미디어지킴이」 발대식 개최
- 98푸른미디어賞 시상식 개최
 - *언어賞/KBS 손범수씨,
 - *어린이賞/EBS 「선생님 질문있어요」 제작진
 - *청소년賞/KBS 「신세대보고 어른들은 몰라요」 제작진
 - *가족賞/MBC 「화제집중 생방송 6시」 제작진

1999년

- 제5차 「미디어포럼21」 “시청자가 바라는 방송개혁” 개최
- KBS “시청자의견을 들읍시다” 제1차 제작
 - *9시뉴스의 여성앵커의 이미지에 대한 접근
- 집중모니터 제1차 보고서 발간/KBS 2TV 「학교」
- 회원워크샵 “미디어교육 강사훈련 워크샵” 개최
- 99미디어교육 「텔레비전 바로보기와 모니터방법론」 개최
- KBS “시청자의견을 들읍시다” 제2차 제작
 - *농촌드라마 “대추나무 사랑걸렸네”에 대한 접근
- MBC TV “99미스코리아선발대회 중계방송에 대한 공개질의서” 발송

- KBS “시청자의견을 들읍시다”
 - *제3차 제작/“공개수배 사건25시”에 대한 접근
- 제6차 「미디어포럼21」 “공영방송과 TV수신료! 무엇이 문제인가?” 개최
- 99미디어교육 제6기 「어린이방송학교」 개최
- 99미디어교육 제2기 「청소년미디어학교」 개최
- “미디어교육강사훈련워크샵” 진행
- 99미디어교육 “출장!미디어교육” 개최/약 20여회의 교육 진행.
- 99미디어교육 “인터넷 음란물로부터 자녀보호를 위한 99학부모교육” 개최/전국적으로 약 20여회의 교육.
- 교재 “인터넷 음란물로부터 자녀보호를 위한 학부모지침서” 발간
- “청소년의 인터넷 음란물 중독증후군 분석을 위한 설문조사 실시”(수도권 지역 1000여명)
- 제7차 「미디어포럼21」 “진단, 한국방송의 경박성! 어디까지인가?” 개최
- 99푸른미디어賞 시상식 개최
 - *언어賞/MBC 「칭찬합시다」의 정은아씨와 KBS 「비디오챔피언」의 정재환씨가 공동수상,
 - *청소년賞/EBS 「알고싶은 성 아름다운 성」 제작진
 - *가족賞/KBS 「역사스페셜」과 SBS 「호기심천국」 제작진
 - *어린이賞은 수상작 없음

2000년

- 연구보고서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증후군 및 음란물 접촉행위에 관한 연구」 발간
- 제8차 「미디어포럼21」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과 음란물 수용에 관한 토론회” 개최
- 제9차 「미디어포럼21」 “시청자위원회와 시청자평가원제도의 발전적인 운영방안” 개최
- 제10차 「미디어포럼21」 “위성방송과 시청자권익” 개최
- 2000최악의프로그램 발표회
 - *최악의방송프로그램- SBS 「남희석의색다른밤」
 - *나쁜방송프로그램- SBS 「한밤의 TV연예」, MBC 「일요일일요일밤에」, KBS 「송화」
- 2000위스트방송 개선을 위한 시청자캠페인
 - *SBS 「한밤의 TV연예」를 개선대상 프로그램으로 삼아 집중 활동 전개 :

결국 주2회 편성을 주1회 편성으로 줄여내고, '시청자유감' 표시를 끌어내었음.

- *시청자단체 최초로 방송프로그램편성에 대한 요구를 관철시킴
- 방송위원회에 KBS "시청자평가프로그램" 불방에 대한 행정조치(과태료 처분) 요구
- KBS "시청자의견을 듣습니다-TV속으로" 제작
- *KBS2000가을개편에 대한 접근
- "인터넷음란물로부터 청소년 보호를 위한 2000 학부모 교육"을 전국적으로 약 40여회에 걸쳐 실시
- 2000푸른미디어상 시상식
- *언어賞/MBC 「생방송퀴즈가 좋다」의 임성훈 씨,
- *어린이賞/SBS 「단편만화 소나기」,
- *청소년賞/EBS 「10대의표현, 우리가 말한다」 제작진
- *가족賞/KBS 「시청자칼럼우리는세상」 과 KBS 「인간극장 '저산골엔 영자가 산다」 제작진

2001년

- "미디어운동본부 3주년 기념간담회" 개최
- 2001시청자캠페인 책임평가단워크샵 개최
- 2001시청자캠페인 3회 100여명에 이르는 시청자평가단 1차 워크샵 개최
- 제11차 「미디어포럼21」 "어린이 수용자주권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개최
- 2001시청자캠페인 시청자평가단, 어린이평가단 발족식 및 2차 워크샵 개최
- 2001최악의방송프로그램 발표회
- *최악의방송프로그램- KBS 「특종사건파일」
- *나쁜방송프로그램- SBS 「초특급일요일만세」, 「드래곤볼」
- "어린이텔레비전법" 입법 청원을 위한 공청회 및 입법청원
- 제12차 「미디어포럼21」 "청소년의 인터넷 문화 탐색과 네티켓" 개최
- 2001푸른미디어상 시상식
- *언어賞/MBC 「생방송퀴즈가 좋다」의 임성훈 씨,
- *어린이賞/SBS 「단편만화 소나기」,
- *청소년賞/EBS 「10대의표현, 우리가 말한다」 제작진

*가족賞/KBS 「시청자칼럼우리는세상」 과 KBS 「인간극장 '저산골엔 영자가 산다」 제작진

2002년

- 2002책임평가단 워크샵
- *평가단을 대표하는 책임평가단의 단합과 2002년 활동에 대한 논의의 장이었음
- 2002시청자평가단 · 어린이방송평가단 신입교육
- *중부여성발전센터 등에서 실시한 모집교육 10여회
- *시청자운동의 필요성 및 평가단활동의 중요성'에 대한 강의를 통해 평가단을 모집함
- 남서여성민우회 · 고양여성민우회 모니터요원 양성을 위한 집중교육 각 10회 실시
- 2002내부정책포럼 I 「시청자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디지털전환방식」
- *전문성 강화를 위한 내부포럼으로 주요활동가 14명이 참석해 열띤 토론을 펼침
- 어린이날 이벤트 모의재판 「텔레비전」
- *덕수초등학교 대강당에서 약 400여명의 덕수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어린이방송평가단들이 직접 연극 공연, TV 및 인터넷 사용습관에 대한 설문조사 실시
- *어린이방송평가단 · 시청자평가단의 청와대 방문 및 "어린이텔레비전법"을 염원하는 서한전달
- *"어린이텔레비전법" 집중홍보
- 2002고양민우회 어린이대상 미디어교육
- 2002여름애니메이션 학교
- *어린이들이 제작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
- 2002모니터워크샵 개최
- 제13차 미디어포럼21 「누구를 위한 시청자평가프로그램인가」
- *방송위원회 및 방송3사(KBS, MBC, SBS)내용 개선을 위한 제안서를 보내고 답변을 받음.
- 내부정책포럼 II 「위기의 남자」 작가와 함께」
- 2002어린이방송평가단 · 시청자평가단 여름워크샵
- *어린이방송평가단과 시청자평가단 약 150명 참여라는 높은 참가율과 적극적인 분위기로 만족스러운 워크샵이었음.
- *어린이방송평가단 - 애니메이션 제작 교육과 방송모니터 교육 실시
- *시청자평가단 - 방송모니터 재교육과 자기성찰교육 실시

- 어린이방송평가단의 KBS·EBS 여름방학 특별전학
 - *어린이방송평가단 55명과 시청자 평가단 15명이 참여.
- 한나라당 보도지침 관련 시청자단체 공동기자회견
- 2002최악의방송프로그램 선정발표회 개최
 - *최악의방송프로그램- KBS 「개그콘서트」
 - *나쁜방송프로그램- KBS 「아침마당 화요일분 - 부부탐구」, MBC 「신비한 TV서프라이즈」
- EBS 「와우!미디어탐험」 제작관련 간담회
- 지상파3사 가을개편 관련 시청자단체 기자회견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매체비평우리스로, 문화개혁을위한시민연대, 미디어세상열린사람들,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서울YMCA시청자시민운동본부,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언론위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21세기여성미디어네트워크 등 범시청자단체 공동대응
- 2002내부정책포럼Ⅲ 「대선TV토론 어떻게 볼 것인가」
 - *대선을 앞두고 있어서 주요활동가들의 참여가 높았음.
- 2002푸른미디어상 시상식
 - *언어賞/KBS 김재원씨,
 - *어린이賞/EBS 「와우! 미디어탐험」 제작진,
 - *청소년賞/KBS 「접속 어른들은 몰라요」 제작진,
 - *가족賞/MBC 「느낌표」 제작진
- 2002내부정책포럼Ⅳ 「주철환교수와 함께 살펴보는 시민과 함께하는 시청자단체의 역할」

2003년

- 2003어린이방송평가단 및 시청자평가단 SBS 겨울방학 특별전학
 - *어린이방송평가단 60명, 시청자평가단 18명 참여
- 2003계량평가방식 도입을 위한 방송모니터링 심화교육
 - *여성주의 관점을 강화한 계량 모니터 방법론 교육으로 33명이 참여
- 8개시청자단체 공동연수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매체비평우리스로, 미디어세상열린사람들,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서울YMCA시청자시민운동본부,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 인터넷동영상미디어교육 10강 제작
 - *교육분과 회원들과 어린이방송평가단이 직접 참여, R-TV의 협조로 제작됨.
 - *제작과 비판교육이 결합된 새로운 미디어교육의 성과.
 - *미디어 속의 고정관념, '텔레비전 편성', '텔레비전 프로그램등급제', '애니메이션의 세계', '애니메이션 만들기', '방송국전학-매직키드 마수리', '뉴스', '광고', '텔레비전 시청습관', '세계의 영화' 제작
- '2003No다이어트No성형캠페인'
 - *워크샵/모니터링/토론회/참여프로그램 제작
 - * '지상파방송주시청시간대 출연자 분석'모니터링/10여개 신문, 4개 지상파방송사에서 집중 조명되는 성과
 - *KBS 열린채널 '나이프스타일' 제작/현재 초중고 교육용으로 활용
- 방송법관련 시청자단체 워크샵 및 공동 입법청원
- SBS옴부즈맨프로그램 '출동NGO' 참여
 - *'뷰티풀선데이의 문제점', '방송에 나타난 여성차별 분석', '조기종영의 문제점', '휴먼스토리 여자', 'SBS연말 결산'에 출연해 프로그램과 구조적인 문제점에 대해 지적함.
- 2003미디어바로보기 확산을 위한 미디어강사교육
- '아침마당' 제작진 간담회/아침마당의 개선방향 논의
- 은평노인복지관 초등학생 방학특강 미디어교육 실시
- 2003고양여성민우회 애니메이션 특강 실시
- '2003엄마랑아이랑 영상제작캠프' 실시.
- 2003어린이방송평가단·교육분과 KBS 여름방학 특별전학
 - *어린이방송평가단 60명과 교육분과 24명 참가
- 핵심활동가워크샵 개최
- 농협여성조합원 대상 교육 등 다양한 미디어교육 10여회
- '2003미디어바로보기 확산을 위한 초등대상 미디어교육'/미디어교육 확산에 기여함.
 - 흑석초등학교, 덕수초등학교, 문창초등학교, 당곡초등학교, 남명초등학교, 일산 풍산초등학교, 신정초등학교, 고양 성사초등학교 등 수도권 초등학교 10개교 4~6학년 대상 128강 미디어교육

실시

- 경인방송음부즈맨프로그램 및 KBS음부즈맨프로그램 참여 약 15회
- '2003남녀평등한 방송문화 형성을 위한 시청자캠페인 I-전문가토론회'
 - *김은혜 MBC앵커, 서수민 KBSPD, 박예랑 드라마작가, 남지혜 SBS심의팀차장 등을 초청해 3부에 걸쳐서 집중토론 펼침.
 - *1부/미디어와 여성·여성운동, 2부/남녀평등한 방송 문화를 위한 현장의 노력, 3부/남녀평등한 방송문화를 위한 개선 방안 모색
 - *여성주의 미디어운동 방법론 개발과 연대의 가능성을 확장한 전문가 토론회로 많은 관심을 받음.
 - 방송사내 여성인력과 네트워크 가능성 확인.
- 여성부·PD연합회 제작자워크숍 참석
 - *민우회의 전문가토론회 직후에 진행된 프로그램으로 PD연합회의 여성위원회 설치에 대한 약속이 있었고 많은 제작자들과 유대관계를 형성함.
- 시민방송과 방송문화진흥회가 공동주관한 '제1회 시민이 만드는 방송영상제'에서 장려상 수상
 - 어린이방송평가단 영상작품 '아이들이 보는 세상'
- '2003남녀평등한 방송문화 형성을 위한 시청자캠페인 II-방송프로그램에 대한 양성평등의식에 대한 설문조사
- 한국여성개발원 주최 '방송광고 속의 성차별성 토론회' 발제 및 모니터링
 - *지상파 3사에서 제공되는 새벽 6시부터 익일 새벽 1시까지의 광고를 2주간 모니터링한 성과
- '2003남녀평등한 방송문화 형성을 위한 시청자캠페인 III- 간담회 5회 개최'
 - *방송3사 심의팀, KBS 교양PD, 지상파 3사 연예오락 여성PD, 방송작가
 - *방송 프로그램에 대한 각각의 문제의식과 대안 마련에 대한 구조화의 대한 논의.
 - 방송3사 여성인력에 대한 구체적인 문제를 알게 됨.
- 2003푸른미디어상 시상식
 - *언어賞/KBS 윤도현씨,
 - *어린이賞/EBS 「요리조리광광」 제작진
 - *가족賞/MBC 「전과견문록」 제작진

*청소년상은 해당작 없음

- 2003최악의방송프로그램 선정발표회
 - *최악의방송프로그램- MBC 「인어아가씨」
 - *나쁜방송프로그램- KBS 「자유선언토요대작전(장미의 전쟁)」, MBC 「강호동의 천생연분」 SBS 「뷰티풀선데이」
 - *여성의 관점에서 고정관념을 강화하고 성을 상품화하는 프로그램에 대해 총괄적인 문제제기를 시도했다는 성과가 있었음.
- 2003미디어바로보기 확산을 위한 초등대상 미디어교육 평가 워크숍
- *2003년 미디어교육 확산에 대한 평가와 2004년 미디어교육의 방향에 대한 열띤 토론의 장이었음.

장애왜곡 및 편파보도에 대한 장애계 대응과 언론의 활용

박숙경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인권국 팀장)

들어가며

현대사회에서 언론매체의 영향력은 가공할 만하다. 특히 방송은 영상을 통해 시청자들의 인식에 무엇보다 강한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이렇듯 사람들의 인식이 가공할 영향을 주는 방송에서의 장애인에 대한 인식은 초보적인 수준을 넘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방송을 통해 장애를 심각하게 왜곡하거나 비하하기도 한다. 이렇듯 우려할 상황임에도 방송에서의 장애인에 대한 그릇된 인식과 편견을 바로잡기 위한 사회적 노력은 거의 전무한 상황이다. 간간히 심각한 장애비하발언이 이루어질 경우 해당 발언자에 대한 사과요구 수준에서 일회적이고 즉흥적인 대응이 있었을 뿐이다.

발제에 앞서 인터넷신문을 통해 최근 2~3년간 장애와 관련한 언론모니터사례를 찾아보았으나 겨우 3~4사례를 넘지 못하고 있었다. 결국 “장애왜곡 및 편파보도에 대한 장애계 대응과 언론의 활용”에 대해 극히 초보적 수준에서 한정된 사례 중심으로 살펴볼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취약하고 모자라더라도 첫걸음은 어떤 걸음보다 의미가 크다. 부족하나마 나름의 견해를 바탕으로 그동안 주로 나타난 장애 인권침해사례를 유형화하므로써 방송에서의 장애인권실태를 살펴보고, 다음으로 발제자가 관여했던 두 가지 대응활동의 사례를 통해 모니터활동의 과제와 의의를 짚어볼 것이다. 마지막으로 거칠지만 인권침해유형과 대응활동을 통해 드

러난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고자 한다.

1. 방송에서의 장애인권 실태

1) 장애인 등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무관심이 심각하다

『민주언론시민운동연합』에서 지난해 방송3사의 주요뉴스에 대한 모니터를 실시한 결과 장애인 등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보도는 0.4%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장애인관련 보도의 경우 사건이나 행사를 소개하거나 미담사례를 전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이와 관련 『민언련』은 “사건과 행사보도라 하더라도 방송3사가 일치된 소재를 다룬 경우가 한 차례도 없어 어떤 기준으로 보도하는지도 의구심을 갖게 한다”고 분석했다.

민언련은 “방송3사 모두 사회적으로 차별 받고 있는 소수자들이 우리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시청자들의 관심을 환기시키는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며 “특히 ‘공영방송’인 KBS와 MBC조차도 ‘소수자’들에 대한 무관심을 드러내고 있어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고 제기했다.

아직까지 모니터조사결과가 없으나 드라마와 쇼프로그램 등의 경우 장애인 등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비중은 더욱 심각한 수준이다.

2) “장애인 따로” 분리적, 부정적 인식이 심각하다

4) 2003년 6월 1일부터 7월 10일까지 KBS 뉴스9, MBC 뉴스데스크, SBS 8시뉴스에 대한 모니터를 실시한 결과 방송3사의 총 보도량 중 장애인, 성적소수자, 외국인노동자 등 사회적 소수자 관련 보도는 총 보도량 3,192건 중 13건(단신 2건 제외)으로 0.4%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장애인관련 보도는 KBS 3건, MBC 3건(단신 1건), SBS 2건으로 총 보도량의 0.25%에 머물렀으며 성적소수자 관련보도는 KBS 1건, SBS 1건으로 0.06%, 외국인노동자 관련보도는 KBS 1건, MBC 단신 1건, SBS 1건으로 0.06% 등이었다.(에이블뉴스 2003년 7월 30일자 보도내용중 발췌)

장애인운동의 궁극적인 목적은 사회통합이다. 장애가 있는 없는 그저 일상적으로 자연스럽게 어울려 사는 것은 사회구성원으로서 너무도 당연한 권리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우리사회는 장애인을 사회로부터 분리하고 따로 특별한 대상 또는 열등한 대상으로 취급하려고 한다. 특수학교, 장애인생활시설 등은 모두 이러한 분리적 사고로부터 출발한 것이다. 방송의 경우도 예외가 아니다. 시청률이 극히 저조한 시간대에 장애관련 프로그램을 편성해놓고는 책임을 다했다고 생각한다.

사람들이 저마다 다양하듯 장애를 가진 사람도 다양한데 장애인은 꼭 도움을 받아야만 할 사람으로 그리거나 때로는 기적이나 개인의 피나는 노력으로 극복될 수 있는 것으로 그리기도 한다.

드라마, 쇼프로그램 등을 보면 마치 우리사회에는 장애를 가진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는 듯 하다. 간혹 장애를 가진 사람이 등장하는 경우도 장애를 왜곡하거나 장애는 불행이라는 부정적 인식을 깊게 깔고 있는 경우가 많다. 예컨대 얼마 전 인기리에 방영되었던 드라마 '불새'를 보면 사고로 휠체어를 타게 된 여성이 갑작스런 전기충격으로 벌떡 일어난다. 이 순간 시청자들은 자신도 모르게 장애를 일상적 상황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부인하게 된다.

결국 장애인은 간혹 "사랑의 리퀘스트" 같은 프로그램에서 불쌍한 자선의 대상으로 그려지거나, 뉴스나 시사프로그램을 통해 "시설에서 매 맞는 정신지체장애인" "유치원에서 칼을 휘두르는 정신장애인" 등 심각한 사회문제의 주인공으로 문제화된다. 간혹 미담의 대상으로 다루어지거나 장애극복의 주인공으로 다루어지는 것이 전부다.

최근 들어 교육방송의 유아프로그램에 휠체어를 탄 아이가 출연하고, 뇌성마비장애를 가진 진행자가 장애관련프로그램을 진행하거나 사고로 휠체어를 타게 된 유명가수가 등장하기도 한다. 고무적인 일이다. 그러나 아직도 방송에서 그려지는 장애인은 부정적이고 어둡고 시혜의 대상으로서 시청자들의 장애인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낙인을 부추기는 것이 사실이다.

3) 장애비하발언에 속수무책인 허술한 방송시스템

방송에서의 사회인사에 의한 장애비하발언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2003년 5월 31일 YTN 2시 뉴스의 현장 '현장포커스'의 '도마 위에 오른 호주제 폐지'대담 토론에서 「정통가족제도수호범국민연합」 공동대표가 호주제폐지에 대한 논쟁중 "예를 들면 교통사고 당한 사람이 불쌍하다고 전 국민을 병신 만들어 똑같이 평등하게 하자는 주장과 같다"는 발언을 한 바 있다. 당시 한국여성단체연합과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는 성명을 내고 공개질의를 통해 공개사과를 촉구한 바 있다.

2000년 12월 4일 KBS 2TV '행복채널'에서 당시 인기개그맨이었던 L씨는 "불결한 성관계가 장애아를 낳는다"는 발언을 하였다. 이에 인터넷의 KBS 홈페이지를 비롯한 각종 사이트에 그를 비난하며 사과를 요구하는 글들이 폭주했고, 방송을 보지 못한 이들도 이러한 투고의 글을 접함으로써 분노의 불길이 온 사회로 번져 나갔다. 결국 사과방송과 함께 일부 장애인 단체로 사과방문을 하게 되었지만, 아직도 그가 우리에게 무심히 던져준 마음의 상처는 그대로 남아있는 듯하다. 이 사례의 경우 한 개그맨이 자신의 무지에서 비롯된 근거 없는 말들을 당사자에 대한 고려 없이 개그를 하듯 무차별적으로 발언을 던졌다는 사실 자체로만 받아들이기엔 너무 경솔한 일인 듯 보인다. 공영방송에서 그 부분이 방송된다는 문제나, 사회자 역시 '의학적 근거가 없다'는 정도로 얼버무리고 넘어갔다는 문제는 방송의 취약한 현실을 드러내기에 충분하다.

이상 두 가지 사례의 경우는 그나마 장애계가 해당발언자에게 공개사과를 요구하여 일부 대응이 이루어졌으나 각종 쇼프로그램(토크쇼, 개그프로그램 등)에서의 장애비하발언 등에 대해서는 방치되고 있다.

장애비하발언의 경우 방송사가 모든 출연자의 발언을 사전에 통제할 수 없으며 자

질을 검증하기 어렵고 방송 특성상 돌발적인 상황을 막기 어렵다는 점에서 방송사의 구조적인 문제로 다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점에 문제가 크다. 방송의 사회적 책임과 영향력을 고려할 때 이런 소극적 방식이 아닌 보다 사전에 적극적으로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비하 발언을 예방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4) 장애에 대한 무지와 인권감수성 부족으로부터 발생하는 간접적 침해사례

장애에 대한 비하 발언은 단순한 발언 그 자체보다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부재 즉 감수성의 부재로부터 발생한다. 직접적으로 장애를 언급하며 인권을 침해할 의도는 없었으나 인권감수성 또는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무지로 인해 문제가 되는 경우도 많다.

대표적 예로 2004년 7월 16일 MBC 시사교양 프로그램 '신강균의 뉴스서비스 사실은'에서 서울시의 새로운 교통체계를 진단하면서 "저상버스와 굴절버스 도입"을 예산낭비와 전시행정의 대표적 예로 지적한 경우를 들 수 있다. 이날 보도의 주요 요점은 서울시의 새 교통체계가 서울시민들에게 혼란을 주고, 시민들의 세금을 낭비하고 있다는 것으로 MBC는 서울시버스노조와 버스업계 관계자들의 발언을 인용해 굴절버스와 저상버스의 운영이 세금낭비의 대표적인 예로 보도했다. 당시 이에 대해 한국시각장애인연합, 장애인이동권연대, 편의시설촉진시민연대 등에서는 성명을 발표하고 대규모 시위를 벌여 사과방송을 이끌어냈다.

또 다른 예로 2004년 5월 4일 MBC '뉴스투데이'가 정동영(당시 열린우리당의장)이 일산의 H시설을 방문하여 성인장애인을 목욕시키는 장면을 그대로 보도한 경우도 제작진의 인권감수성 부재로 인해 결과적으로 장애인의 인권을 침해한 대표적 사례로 들 수 있다. (이 부분은 대응활동에서 자세히 다루기로 하겠다.)

이러한 무지와 인권감수성부재로 인한 간접적 장애인권침해 역시 무수히 많이 이루어지지만 이렇다할 대응과 사전 예방 노력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5) 추측성보도 또는 지나치게 장애를 강조하므로 인해 장애에 대한 낙인을 부추기는 경우

매일 이어지는 각종 사건보도에서 사건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장애를 지나치게 강조하거나 추측성 보도에 의한 인권침해도 심각한 상황이다. 대표적인 예로 2003년 전 국민을 가슴 아프게 한 대구지하철화재사건과 개구리소년 사건 등을 들 수 있다.

대구지하철화재의 경우 화재사건이 터지면서 TV, 라디오 등의 속보를 통해 끊임없이 범인이 정신장애인(심지어는 정신지체)라며 사건과 직접적 개연성이 적은 사실을 지나치게 강조하면서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적대감을 키웠다. 이 결과 당시 각종 인터넷게시판에는 입에 담기 어려운 장애비하내용과 장애인을 협박하는 내용이 수없이 올라왔다.(이 부분은 대응활동에서 자세히 다루기로 하겠다.) 무엇보다 가뜩이나 사회적 낙인이 심한 정신장애인과 가족들에게 엄청난 고통을 안겨주었다. 이 외에도 "개구리소년" 살해사건의 경우 아직 범인에 대한 아무런 단서도 없는 상황에서 "범인이 정신장애인인 것으로 단정하거나 연쇄살인사건이나 미해결사건의 범인을 정신장애인으로 추정하는 내용의 보도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사회적 낙인이 심한 정신장애인에 대한 방송의 선정적이고 정확하지 못한 보도태도는 우리사회 방송의 인권수준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

2. 사례를 통해본 대응활동

언론매체는 법과 같이 잘 활용하면서 동시에 감시활동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아직까지 언론모니터 활동은 그리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다. 연구소의 경우 2002년부터 '언론모니터링'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해왔으며 현재 언론모니터단이 조직되어 활동을 시작하고 있다. 언론모니터 활동은 해당언론사에

직접 문제를 제기하는 방법, 언론 중재위원회나 방송위원회를 통해 문제제기를 하는 경우와 직접 소송을 통해 진행할 수 있다. 다음에서 정동영(당시 열린우리당 의장)의 "중증장애인목욕사건"과 "대구지하철화재사건"에 대한 방송보도에 대한 모니터링사례를 통해 대응과정과 함의를 살펴보고자 한다.

사례 1. 정동영의장 중증장애인 목욕신 보도에 대한 대응사례

(1) 사건개요

2004년 5월 2일, MBC는 열린우리당 의장 정동영이 일산의 홀트복지센터를 방문하여 30이 넘는 중증성인장애인을 발가벗긴 채 목욕시키는 모습을 모자이크처리 조차 여과 없이 방송했다. 당시 보도 장면은 목욕을 당하는 장애인의 다리가 위로 치켜 들어올려져 있기 때문에 치부가 그대로 드러난 채 방송되었다.

MBC- 열린우리당 의장 정동영의 홀트복지센터 목욕장면



(사진제공 위드뉴스)

(2) 대응과정

이에 대해 장애계는 5월 4,5일 연속적으로 항의성명을 발표하고 열린우리당과 해당 언론사에 공개사과와 사진 삭제를 요구하였다. 열린우리당은 5월 7일 "장애인 인권 보장에 더욱 노력 할 것"이라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정 의장 활동의 순수성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본다."며 "그러나 이와 관련한 언론 보도에서 장애인을 목욕시키는 장면이 걸리지 않은 채 노출됨으로써 결과적으로 장애인과 그 관계자들에게 정신적 불편을 줄 요소가 있었던 점은 유감이다. 좀 더 신중하게 보도하지 않은 언론사의 책임도 없지 않지만, 당으로서도 보다 세심하고 철저하게 신경 쓰지 못한 점 사과드린다."고 발표한 바 있다. (위드뉴스 2004. 5. 10 기사 인용)

이후 5월 10일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장애인이동권쟁취를위한연대회의(아래 장애인이동권연대)를 비롯한 장애인 단체와 시민사회단체를 포함한 38개 단체는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증장애인을 이용한 인권침해에 대한 공개사과 및 인권교육을 촉구'하는 진정을 국가인권위원회에 냈다. 또 방송위원회에 해당방송사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다.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한 진정요지에는 열린우리당 정동영 의장과 MBC, 연합뉴스, 일산홀트복지타운이 장애를 가진 사람의 인격권과 자기결정권을 무시한 처사로 당사자에게 심한 수치심과 모욕감을 느끼게 하는 범죄행위를 저질렀다고 전제하고 "△국가인권위원회는 정동영 의장이 장애인의 인권 침해를 자행한 것에 책임을 지고 공식적인 방식으로 직접 공개사과하고 재발 방지와 인권감수성을 정립하는 인권교육을 받도록 권고하라. △MBC, 연합뉴스가 존중받아야 할 개인의 사적인 목욕장면을 여과 없이 방송함으로써 장애인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한 것에

대해 공개 사과 보도하고, 장애인을 포함한 소수자의 인권 침해를 미연에 방지하는 보도규정을 제도할 것을 권고하라. △홀트복지타운이 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장애인의 인격권과 자기결정권을 보장하는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책임을 방조한 것에 대해 공개사과하고 재발 방지 및 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인권확보를 위한 내부규정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라.”고 요구했다.

방송위원회 진정내용은 5월 2일 MBC 뉴스데스크와 5월 3일 iMBC 뉴스의 노컷 뉴스 '정치권도 가정의 달'의 보도내용에 대해 시설 생활 장애인의 인권을 무시한 방송 내용에 대한 사과방송 요구를 담고 있다. 방송위원회 진정내용에는 △방송에 공개된 장애인의 프라이버시 침해, △해당 장애인이 30대 성인임에도 반말을 사용하며 어린아이처럼 대하는 장면을 여과 없이 방송, △정치인의 선한 이미지를 부각하기 위해 장애인을 정치적으로 이용, △방송사의 장애인에 대한 무지와 왜곡된 방송태도, △장애인을 불쌍하고 열등한 존재로 그림으로 명백하게 방송심의 규정 제 21조 위반 등 다섯 가지를 지적했다.

(3) 결과

이에 방송위는 심의 결과 '장애'에 초점을 맞춘 보도로 인한 장애인인권침해 사실이 인정된다며 MBC에 다음과 같이 주의를 제재하였다고 통보하였다.

처리 결과

○ 제2004-19차(5.19) 및 제2004-20차(5.28) 보도교양제1심위원회는 해당 프로그램에서 특정 정당의 의장(열린우리당 정동영의장)이 장애인을 목욕시키는 장면을 방송하면서 ① 정신지체와 뇌성마비 중복장애가 있는 30대 성인 장애인의 몸과 얼굴을 노출한 점, ② 당 관계자가 "쳐다보내 눈감어"라고 표현한 점, ③ 법률적으로 장애인에 해당하는 표현을 '지체장애'라고 자막처리한 점 등이 '방송심의에관한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여 '주의'제재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4) 합의

이번 방송위원회의 결정은 대구지하철화재참사에 대한 KBS, SBS 해당 보도내용에 대한 "주의"조치 이후 두 번째 사례로 장애인문제를 다룸에 있어 언론사의 보다 신중한 접근을 요구한 중요한 선례이다. 그러나 방송위는 이러한 보도태도가 미치는 영향을 제대로 직시하지 못하고 가벼운 주의조치에 그쳐 보다 근본적인 방송사의 개선을 위한 노력을 이끌어내지 못한 한계가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아직까지 이에 대한 이렇다할 결정을 내리고 있지 않다.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방송의 과급력을 고려한 적극적인 노력이 부족한 것이다. 한편 문제를 제기한 장애인단체 역시 문제제기 이후 끝까지 개선을 촉구하는 노력을 기울이는데 많은 한계를 보여주고 있다. 갑작스런 사건에 대한 일회적 대응의 차원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다른 사안에 밀려 우선순위에서 벗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모니터활동을 보다 전문적이고 지속적으로 끌어갈 수 있는 전문단체와 조직적 운동이 필요하다.

사례 2. 대구지하철 장애관련 보도시 장애인권침해에 대한 대응활동

(1) 사건개요

2003년 2월 18일 대구 지하철 화재가 발생하자 모든 방송사가 앞 다투어 미처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신질환자 또는 정신장애인, 장애인이 지하철에 방화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사망했다"는 내용을 보도했다. 과다하게 사건과 직접 관련이 적은 "장애"를 지나치게 강조하는 보도태도는 시청자들로 하여금 장애인에 대한 적의와 편견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2월 19일 "대구지하철 방화사건 용의자 신상보도에 대한 보건복지부 입장"이란 글을 통해 "대구지하철

방화 용의자인 000씨가 정신질환자인 장애인으로 보도되어 정신질환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심화시키고 있으나 통계적으로 정신질환자 범죄율이 비장애인 보다 낮으며 장애인을 공격자로 각인시키는 보도태도가 사회적 편견에 시달리고 있는 장애인을 더욱 고통스럽게 하고 있음을 지적했다.⁵⁾

(2) 대응과정

성명, 논평을 통한 대응

2월 19일 민언련은 “사망자 숫자 등을 헤드라인으로 뽑는 등의 언론의 선정주의적 보도태도를 경계한다”는 성명을 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민언련의 성명은 “이번 대구지하철 화재사건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개인의 우발적인 범행으로 추정되고 있으나 언론이 ‘테러’라고 까지 하여 사회적 불안감을 가중시키는 것은 문제”라는 내용을 담고 있어 정신장애인에게 가해지는 인권침해를 간과하고 있다. 한편 홍사단은 “차마 참을 수 없는 슬픔을 모아 고인의 명복을 빌며”라는 제목의 성명을 통해 “방화범에 대해서는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여 반사회적 범죄에 대한 경종과 함께 분노한 국민들과 유족들에게 위안을 줄 것과, 이에 있어 정신이상자라는 이유가 참작되어서는 아 될 것이다”라는 내용의 정신장애에 대한 이해부족을 드러냈다. 당시 사건의 용의자는 정신장애인이라기 보다는 뇌졸중으로 인한 편마비장애와 약간의 우울증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극히 일상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고 당시 정신장애에 있어서는 아무런 검증된 사실이 밝혀지지 않은 상황이었다. 2월 20일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은 정정보도요청서를 각 방송사에 보냈으며 장애우 권익문제연구소는 성명을 DPI는 논평을 내고 “언론사의 사실과 다른 보도와 지나치게 장애를 부각하여 장애인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부추기는 보도태도에 대해 사과하고 해명보도할 것”을 요구했다.

5) 범죄발생률 비교 : 비장애인 10만 명당 범죄발생률 일반인 4.0% / 정신병적 장애 2.0%(2000년도 범죄백서)

언론중재위 반론보도 신청

그러나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있어야 할 필요가 있었다. 이에 2월 21일 ‘연구소’에서는 KBS, MBC, SBS의 사건당일인 2월 18일 9시뉴스(SBS는 8시 뉴스)와 주요일간지에 대한 모니터를 실시하여 언론중재위원회에 반론보도를 신청하였다. 하지만 언론중재위원회에서는 “당사자문제”, 언론중재는 해당 당사자가 직접 중재 요청을 해야 한다며 중재신청자격을 문제 삼아 반론보도가 불가능하다고 통보해왔다.

방송위 시청자불만처리위원회 “정정보도”신청

이에 연구소에서는 「언론인권센터」에 △방송심의위원회를 통해 방송 3사에 방송으로 해명을 요청할 수 있는지 여부와 △단체 입장의 대처 방안, △방송 3사에 대한 대응 가능 여부를 질의했다. 이에 대해 언론인권센터는 이러한 방송행태는 방송심의규정 제 21조(인권침해의 제한) 제 2항 및 3항을 위반한 것으로 이에 대해서는 해당 피해자만이 아니라 누구라도 방송위원회에 시청자불만처리를 진정할 수 있다(시청자불만처리등에 관한 규칙 제 2조‘불만처리의 대상’). 따라서 연구소의 명의로 방송위원회에 시청자불만처리를 신청할 수 있으며 각 방송사의 시청자위원회에도 진정할 수 있음을 알려주었다.

2월 27일 ‘연구소’는 방송위원회 시청자불만처리위원회에 지난 2월 18일 대구지하철 화재 참사와 관련한 KBS등 방송3사의 뉴스보도에서 ‘사실에 입각하지 못한 추측보도’와 ‘장애인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부추기는 선정보도’에 대한 사과 및 정정보도를 할 것을 요구했다.

(3) 결과

방송위는 시청자불만처리위원회에서 보도교양심의위원회로 이첩하여 2차례 심의한 끝에 “대구지하철 화재참사와 관련한 해당방송사의 ‘장애’에 초점을 맞춘 보도로 인

제작진은 이
장르가
있어야
↓
상대방의 문제.

한 '장애인인권침해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혀왔다. 이에 방송위는 KBS, MBC, SBS에 대해 "방화용의자의 '장애'에 초점을 맞춘 보도는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악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향후 장애인과 관련한 보도에서는 편견에 의한 보도나 추측보도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고, 나아가 심신장애인 또는 사회적으로 소외 받는 사람들을 다룰 때에는 이들에 대한 편견을 강화하는 역기능으로 나타날 수 있음을 유념하여 그 인권이 최대한 보호되도록 보도·취재시 표현에 신중을 기하기 바란다."는 내용으로 시정권고를 했다.

(4) 합의

그동안 언론에서의 장애인권침해사태에 대한 대응이 주로 성명이나 논평 발표, 공개질의, 시위 등의 방식으로 이루어져 왔으나 언론모니터를 통한 절차를 밟기는 처음이었다.

이번 방송위원회의 결정은 당초 요구한 '사과 및 정정보도'가 아닌 '시정권고'에 그쳐 아쉬운 감이 크다. 그렇지만 그 동안 수없이 문제로 지적되어온 방송이나 신문 등 언론보도과정의 '장애인인권침해'를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나아가 장애인등 소외계층의 문제에 대한 언론사의 보다 신중한 접근을 요구한 선례라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다.

3. 개선방안(과제)

철학이 있는 방송으로 거듭나야

방송에서 장애인을 바라보는 시선에 있어 경쟁주의와 능력주의에 기반을 두어 일반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으로 바라볼 것이 아닌 다양한 특성의 하나로 바라보는 관점과 철학의 변화가 필요하다. 또한 인간의 신체를 획일화하고 등급을 매기는 등

의 천박한 행태를 멈추기 위한 노력이 절실히 요구된다. 이를 위해서는 더 이상 몸짱과 얼짱의 신화와 몸을 상품화하는 천박한 프로그램에 대해 침묵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에 대한 보다 강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눈을 뜨고 보기가 어려운 정도의 오락프로, 상대를 비하하다 못해 거의 언어폭력의 수준에 이르는 쇼프로그램들에 대한 제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시청자들의 적극적인 운동이 필요한 부분이다.

인권감수성을 높이기 위한 교육과 지침개발이 필요하다

또한 방송을 만드는 사람들의 공적책임이 그만큼 강하다는 점에서 방송제작진의 경우 의무적으로 인권교육을 받도록 할 필요가 있다. 물론 국가가 강제하기는 어려우므로 각 방송사가 자발적으로 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사회적 노력이 필요하다. 막연히 아는 것과 정확히 듣고 이해하는 것은 다르다. 따라서 인권교육은 여성, 장애인, 성소수자, 외국인 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방송 내용이 어떻게 문제가 되어 왔으며 어떠한 기준을 가져야 할지를 포함하는 구체적인 내용 즉 일종의 매뉴얼이 개발될 필요가 있다. → 방송사의 지침 분식

장애를 왜곡하거나 편견을 부추긴 경우, 의도와 관계없이 사과방송이 이루어져야 한다.

방송 등 언론사에서 소외계층에 대한 비하 발언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될 필요가 있으며 일단 이루어진 비하 발언에 대해서는 즉시 공개적인 사과방송이 이루어져야 하며 발언의 당사자에 대해 철저히 책임을 묻는 등 사회적 노력이 필요하다. 공개사과는 이후 다른 제작진과 시청자에게 영향을 미치므로 서 재발방지를 위한 효과적인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민간단위 모니터 활동이 보다 활성화되어야 한다

“대구지하철 화재참사”와 “정동영의장의 성인장애인목욕신” 보도로 인한 장애인권 침해사태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느낀 문제점은 이미 상황이 발생한 후 단발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많은 한계가 있다는 것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더 체계적이고 치밀한 모니터링 활동을 통해 즉시 대응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방송의 주인은 제작진이 아닌 시청자라는 것이다. 더 이상 제작된 방송을 소극적으로 시청하는 입장이 아닌 적극적인 의견개진과 활동을 통해 좋은 방송을 만들어가기 위한 모니터 활동이 더욱 활성화되기를 바란다.

맺으며

방송심의규정 제 21조(인권침해의 제한) 제 2항은 “방송은 심신장애인 또는 사회적으로 소외 받는 사람들을 다룰 때에는 특히 인권이 최대한 보호되도록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고 명하고 있으며, 제 3항에서는 “방송은 정신적·신체적 장애인을 조롱의 대상으로 취급하여서는 아니 되며 부정적이거나 열등한 대상으로 다루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자칫 방송이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인권에 관심이 있는 것으로 비쳐질 수 있으나 “규정에서 조차 이를 명시하여 금할 정도로 장애인에 대한 부정적이거나 열등한 대상으로 다루고 있음”을 반증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물론 방송이 장애인권침해의 도구만은 아니다. 각종 시사교양프로그램은 우리사회의 사각지대에 놓인 어려운 문제들을 알려내고 여론을 형성해주기도 하며 때로 공권력조차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범죄현장이나 불법적 인권침해 상황으로부터 사람들을 구해내기도 한다. 그러나 암암리에 방송을 통해 ‘장애를 비하하고 왜곡’하는 내용에 의해 훼손된 사회인식을 다시 되돌려 주기 위해서는 엄청난 사회비용을 필요로 한다. 무엇보다 이미 발생한 문제에 대해 다시 되돌릴 것이 아니라 방송에 의한 장애인권침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사회적 노력이 기울여져야 할 때다.

IV. 종합토론

장애인의 눈으로 방송 다시 보기

- 장애인권적 관점에서 바라본 방송 : 모니터링 사례를 중심으로 -

-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행 총평
- 이태준(장애우방송모니터단)
- 개편이후의 사랑의 가족
- 김주영(장애우방송모니터단)
- 외국과 우리나라 프로그램에서의 장애인을 바라보는 시선의 차이
- 백수정 (서울YMCA 어린이영상문화연구회 미디어교육 팀장)
- 장애인관련 프로그램의 현황 및 문제점
- 박웅진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 연구원)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여행’ 총평

이태준 (장애우방송모니터단)

- 방송프로그램명 : SBS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행’
- 방송시간 : 매주 토 밤 11:55 ~ 12:55
- 모니터기간 : 2004년 5월

“세상에서가장아름다운여행”은 기존의 최루성 이웃돕기 프로그램과 달리 전문가로 구성된 솔루션 위원회를 통해 장애인과 장애인 가족에게 의료, 경제, 심리, 지역사회 등 다양하게 도움을 주는 과정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색다른 구성을 취하고 있다. 또한 장애인의 일상적인 생활을 소재로 하여 장애인 용어를 가급적 언급하지 않고 장애의 특징을 세심하게 담으려 하고, 장애로 인한 어려운 상황을 보여주되 장애인을 어둡고 불쌍한 존재로만 다루는 게 아니라 재미있는 에피소드를 곁들여 담담하게 그리고자 하여 신선한 느낌을 준다. 그렇기에 방송계 내지 일반 시청자 단체에서 좋은 방송프로로 인정받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장애인과 가족에게 체계적인 지원을 하고, 나눔의 문화를 확산시킨다는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의 관점, 인권의 관점으로 방송을 모니터링하면 다음과 같이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첫째, 솔루션 위원회와 황현정 진행자의 적극적인 개입은 장애인을 무능력하

개 수동적인 존재로 부각시킨다.

물론, 방송의 기획의도는 장애를 가진 이와 가족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전문적인 문제해결에 나서겠다고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지만 그 이면에는 방송이 나가기 전 장애로 인한 현실을 이겨내려 했던 개인과 가족의 고민과 노력은 무시되고 있다. 솔루션 위원회를 통해 의사, 심리치료사, 사회복지사 등 각 분야의 전문가가 다양하고 종합적으로 장애인과 가족을 도와주고 있지만 이러한 전문가 중심의 일방적인 도움은 “장애인은 곧 무능한 자”로 인식될 수 있다. 또한 황현정 진행자가 도움을 구하러 다니는 것도 문제가 있다. 문제를 해결하는 주체가 장애인이 아닌 황현정 진행자가 나서는 것 또한 장애인이 도움을 받는 입장을 강조하는 구성이라 하겠다.

즉, 솔루션 위원회와 황현정 진행자의 개입은 장애인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재생산할 뿐만 아니라 장애인이 사회구성원으로써 살아갈 수 있는 자립의 가능성을 배제하기 때문에 설상 방송에서 적극적으로 다양한 도움을 준다하여도 장기적인 안목에서의 진정한 도움이라 보기 어렵다.

둘째, 솔루션 위원회의 진단으로 장애가 ‘문제’라 규정되고 개인을 주인공화하는 휴먼다큐식 구성은 장애를 잘못 이해하고 개인의 책임으로 축소화시키는 오류를 낳는다.

솔루션 위원회의 진단과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접근은 아예 장애는 ‘문제’라는 전제를 깔고 시작한다. 또한 장애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의료적인 잣대로 한정되고, 문제해결과정에서 경제, 심리, 사회 등 영역에서 감안하는 선에 그치고 있다. 장애는 장애인 개인과 가족이 끌어안는 문제가 아니라 장애로 인해 살아가기 어려운 사회적 현실이다.

아울러 방송에서는 규정짓는 문제의 대상이 장애인 개인이며 이에 필요한 지원을

다양하게 해주기 때문에 장애는 개인의 문제이며 책임으로 한정시킬 뿐이다. 공공선을 지향하는 방송에서 아무리 휴먼다큐성의 프로라 할지라도 장애를 사회구조적인 차별의 문제임을 환기시킬 수 있는 의식수준이 갈급하다.

마지막으로, 잦은 결방과 결방에 대한 사과방송이 있어야 한다.

올해 상반기만 해도 5회 결방이 되었다. 본 프로가 시간대가 늦게 방송되는데도 불구하고 애청자의 카페가 별도로 있을 정도로 꾸준히 인기를 얻고 있다. 그러므로 사전에 이 프로에 대한 사과방송 또는 관련 프로 홈페이지 사전예고가 전혀 없다는 것은 시청자의 불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문제점을 토대로 “세상에서가장아름다운여행”이 장애인에 의한, 장애인을 위한 방송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제안을 하는 바이다.

첫째, 전문가 중심의 솔루션 위원회에 출연하는 장애인 또는 장애인의 가족이 참가하도록 해야 한다.

방송은 장애인에게 도움을 주되 도와주는 방식을 달리 할 필요가 있다. 장애인 당사자의 모든 삶의 어려움을 해결해주는 만능해결사가 아니라 도움을 주는 과정에서 장애인의 선택과 의견을 존중하였으면 한다. 이는 장애인이기 앞서 한 인간에 대한 인격적인 존중이며, 정말 원하는 도움을 실질적으로 줄 수 있는 중요한 토대가 될 것이다.

둘째, 장애문제를 사회문제로 환기시키도록 방송에서 의식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휴먼 다큐멘터리이기에 장애 문제를 개인의 문제로 클로즈업하면서 스토리를 풀어갈 여지가 많다. 그러나 장애는 비단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다. 방송을 보고 눈

물을 흘리고 마음을 아파하면서 걱정하는 차원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이에 대한 책임의식을 같이하고 제도나 정책을 바꾸는 노력이 있어야 함을 제시할 때 보다 의미있는 프로그램이 되리라 생각한다.

그리고, 결방을 자제하고 결방에 대한 사과방송 내지 사전의 공지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이는 본 프로그램만 아니라 여타 프로그램에 대한 시청자의 주권을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방송에서 지켜야 할 약속이요, 책임이다.

아직도 장애인을 바라보는 시선은 동정과 시혜에 머물고 있다. 그리고 방송이 이러한 인식을 심어주는 매개체로 역할한다. 방송 자체가 비장애인 중심의 제작진이기 때문에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인 편견을 계속해서 양산하고 있다. 그러므로 방송은 장애인을 긍정적이고 건강한 이미지를 고민하고 그려내며 장애를 사회구조적인 문제로 바라봐야 한다. 그만큼 방송의 영향력은 우리 일상 다반사에 막대하기 때문에 더욱 책임의식이 강해야 한다. 그러므로 장애인이든 비장애인이든 누구나 공감할 수 있고, 감동일 수 있는 방송, 장애인에 대한 배려가 특별하지 않고 평범함으로 그려낼 수 있는 방송이 제작되기를 기대한다.

개편이후의 사랑의 가족

김주영 (장애우방송모니터단)

- 방송프로그램명 : KBS2 '사랑의 가족'
- 방송시간 : 월~목, 17:30~18:00
- 모니터기간 : 2004년 9월~11월

시작 글

<사랑의 가족>이 개편 후 가장 변화된 점을 두 가지 꼽으라면, mc가 연예인인 동시에 장애를 가진 '강원래' 로 바뀐 점과 일주일에 한 번 방송에 그쳤던 것이 주 4회로 늘어서 매일 시청자들에게 보여 진다는 것일 것이다.

한편, 그 내용에 있어서도 장애인 방송은 재미없고 심각하다는 평건을 깰 수 있어 보이는 신설 코너들이 생겼다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주고 싶지만, 큰마음을 먹고 보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어린이 시간대에 편성된 것은 아쉬운 점으로 평가된다.

모니터 결과

1. 좋은 점

첫째, 제작 일선에 장애인들의 참여로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

개편 후, 가장 인상적인 것은 MC가 연예인이자 중도 장애인인 강원래로 교체 되었고, 매 코너마다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고정 패널로 참여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동안 장애인 프로그램에서조차도 소외 돼 있었던 장애인들을 매 코너마다 고정패널로 함께 이야기도 나누고, 직접 현장 취재를 하는 모습, 소식을 전하는 모습에서 기존에 수동적 이미지들을 조금은 깨어주지 않을까 기대해본다. 아울러 이 프로그램에서 MC 강원래가 가지는 의미는 시청자들에게 누구나 장애를 가질 수 있음을 시사하며, 고정 패널들 또한 장애인이 직접 장애인의 입장을 대변해 줄 수 있겠다는 가능성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해 본다.

둘째, 요일별 아이템과 코너가 다양해졌다.

개편 후, 시간이 늘어남에 따라 코너도 늘어났다. 따라서 정보 면이나 흥미로운 코너들로 다채로운 볼거리를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란 기대를 가져볼 만 하다. 예를 들어, 신설된 디카 통신이나 모니터 기간 중에 수요일 코너의 주제를 보면, 시청자들의 원하는 방향에 필요한 정보가 잘 드러나고 있다. 특히, 수요일 코너에서 영화감독 류미례씨가 나와 '영화 속에 비친 장애인'을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는 과정에서 '장애인이 미화되거나 사실과 다르게 과장 되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해 줌으로써 일반 시청자들에게 장애인에 대해 올바른 인식을, 장애인들에게 평소하고 싶었던 얘기를 설득력있게 전달해 주고 있었다.

셋째, <디카 통신> 코너는 시청자 참여 코너로 시청자들의 눈을 사로잡을 것으로 기대된다.

매일 방송되는 <디카통신>은 요즘 유행하는 디지털 카메라로 장애인들의 편의시설을 찍어 보여 주는 코너이다. 이 코너의 기획 의도는 시청자들이 직접 장애인 편의시설에서 잘된 곳은 칭찬해 주고, 잘 못된 곳은 꼬집어 준다는 점에서 참신하고 환영할 만하다. 그리고, 시청자 참여코너란 특성을 살려 톡톡 튀는 개성으로 재미와 신선한 아이템들이 보여 지고 있다. 특히, 나레이션을 맡은 강원래가 과거의 재미있던 말씀씨들이 이 코너에서 가장 많이 살아나 프로그램 전체에 활기를 넣어주고 있다는 인상을 준다.

2. 코너별 들여다보기.

월요일: 나눔의 현장, 1% 기적

사회에서 소외되어 어렵고 외로운 삶을 살고 있는 장애인들을 소개하고 이들이 새 삶을 살기 위해 절실히 필요로 하는 것을 자원봉사자와 기증자를 연결하여 1%의 작은 기적을 함께 나누는 코너로 기획되어졌다. 그러나 이런 아이템이 자칫하면 배품식 이벤트화 되어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시혜적 존재로 조명될 수 있는 여지가 있어 보인다. 이런 문제의 지적은 그동안 방송에서 보여주기식 억지 연출이나 짜여진 감동을 반복하며 장애인의 왜곡된 이미지를 덧씌울 뿐이라는 점에서 비롯된다. 예를 들어 11월 15일 방송에서 보여주었던 '23년만의 외출'은 이런 우려의 시선을 여지없이 현실화시켰다. 주인공에게는 꼭 필요한 휠체어를 주면서 '로또복권'에 당첨되듯 이벤트적인 연출에, 휠체어가 생겨 기뻐하는 가족과 주인공의 얼굴과 눈물을 클로즈업하며 억지 감동을 연출할 필요는 없어 보였다. 한편, 목발장애인이 2명이나 출연하는데(리포터와 의뢰인), 불편함을 감수하면서까지 촬영지가 '부산'이란 것을 보여주기 위해 해변에서 촬영을 해야 했을까? 이런 상황에선 연출에서의 융통성이 필요했다. 이 장면은 좀더 장애를 배려하면서 바

다의 분위기를 살릴 수 있는 연출이 아쉽다. 결론적으로 이런 아이템들은 혜택을 받는 입장보다 혜택을 주는 입장을 조명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비장애인 리포터에 가려져 장애인 리포터가 소모품처럼 보여지기도 하고 보조적인 역할과 어색함이 묻어날 수 있다. 이젠 이런 아이템들은 자제되어야하며 독립적이고 당당한 사회인으로 조명될 수 있는 코너들이 생겨나야한다.

방송 요일	코너명	기획의도	고정패널
월	나눔의 현장, 1% 기적	사회에서 소외되어 어렵고 외로운 삶을 살고 있는 장애인들을 소개하고 이들이 새 삶을 살기 위해 절실히 필요로 하는 것을 자원봉사자와 기증자를 연결하여 1%의 작은 기적을 함께 나누는 코너	박마루(가수), 권영찬(개그맨)
화	새출발, 세상속으로	일주일간의 장애인관련 화제, 특종취재, 장애별 재활방법 등을 소개한다.	윤선아 (KBS 제3라디오 DJ)
수	함께가는길	장애인이 겪는 각종 사회적, 제도적 문제점을 다룸으로서 장애인의 권익 신장에 직접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장애인들이 부딪히기 쉬운 사회적 차별과 불합리한 정책들을 전문가와 심도있게 논의한다.	한석준(연극배우)
목	아름다운사람들	장애를 극복하고 희망차게 살아가는 장애인들의 삶을 그리는 코너입니다.	김정렬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소장)

[사랑의 가족 요일별 프로그램]

화요일: 새 출발, 세상 속으로

개편 전의 해피통신과 알림방의 역할로 장애계의 행사나 교육, 취업 등의 정보제공 차원에서 마련되었다고 보여 진다. 그러나 예전의 방송 내용보다 생동감이나

현장감이 떨어져 지루한 감이 느껴진다. 그래서 정보 전달력이나 연출이 떨어진다는 느낌과 함께 잡다하다는 느낌마저 든다. 다시 말해, 이 코너의 성격에 맞는 짜임새 있는 구성이나 연출에서 아쉽다는 지적이다. 결론적으로 이 코너는 일주일간의 장애인관련 화제, 특종취재, 장애별 재활방법 등을 소개한다는 목적으로 의미가 있다. 그러나 단순히 정보를 전달해주는 입장에서 벗어나 정보의 성격을 잘 살린 구성이나 연출로 리듬감 있고 현장감을 살려낼 때 코너로써의 제 역할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수요일: 함께 가는 길

장애인이 겪는 각종 사회적, 제도적 문제점을 다룸으로서 장애인의 권익 신장에 직접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장애인들이 부딪히기 쉬운 사회적 차별과 불합리한 정책들을 전문가와 심도 있게 논의한다는 취지를 밝히고 있다. 그러나 현재 개편 전보다 할애된 시간이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논의를 하다 만 듯한 느낌을 줄 때가 자주 보인다. 또한, 개편 전, 비교적 구체적이었던 인터뷰 화면이나 자료화면 제시가 개편 후 오히려 좌담 형식으로 변화되면서 정보 전달력이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 코너의 목적은 장애계의 문제들을 짚어 보고 대안을 모색해보자는데 의미가 있다. 그 목적을 잘 살리기 위해서는 제작진들의 발로 뛰는 수고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다시 말해 지금 현재 그들이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며 현실적인 대안을 함께 찾아보는 노력들이 우선되어야 하고, 그것을 어떻게 하면 밑도 있게 구체적으로 조명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그래서, 끝이 없는 얼버무리기식 결론보다는 대중적이고 보편적인 장애인문제를 소수자의 관점으로 부합하길 바란다.

전체적으로 자막방송 한다면 모를까 못 알아듣는 것도 아닌데, 한석준만 자막이 나온다는 건 장애의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는 듯해 안타깝다.

목요일: 아름다운 사람들

장애를 극복하고 희망차게 살아가는 장애인들의 삶을 그리는 코너다.

월요일코너와 차별성이 없고, 다른 다큐멘터리 프로그램과도 유사하다.

장애인들은 언제나 주변 사람의 도움이 받아야 하고, 온정주의적 시각을 반영하는 미담 중심의 아이템은 자제해야 한다.

장애인을 도움 주는 자로 수동적으로 그리거나 장애극복을 감동의 요소로 연출되는 천편일률적이고 미담 중심이야기는 다른 방송에서도 많이 비추어진다.

'사랑의 가족' 만의 좀 더 독창적인 아이템이 있었으면 한다.

제언**1. 각 코너별 기획의도에 맞는 고정패널을!!**

정보 및 교양을 목적으로 하는 코너별 구성물의 경우, 그 코너의 성격을 잘 살려 줄 수 있는 패널이야말로 정보의 신뢰감과 함께 그 프로그램을 재미있게 이끌어 갈 수 있다는 의미에서 중요하다. 위의 표에서도 알 수 있듯이, <사랑의 가족>은 각 코너의 기획의도와 패널들의 이미지간에 불협화음을 보이고 있다. 예를 들어, '아름다운 사람들' 이란 코너는 미담을 소개한다는 의도로 기획되어졌다. 그런데, 이 코너에 출연하는 고정패널은 장애문제 전문가이다. 때문에, 장애인의 인권문제나 정책문제에 더 적합한 패널이라 보여진다. 다시 말해, 이 코너는 개편 전과 같이 사연의 실제주인공이 스튜디오에 나온다거나 인생경험이 풍부한 사람이 출연해 대화를 나누어 주는 것이 훨씬 흥미롭지 않았을까 싶다. 다른 코너들에서도 패널의 선택에 있어 그 코너의 성격을 고려한 섭외가 우선시되어야 할 것이다.

2. 온정주의적 전체 프로그램 명, 코너 명에서 탈피하라.

그 프로그램의 기획 의도나 방향은 프로그램명이나 코너 명들에서 가닥이 잡혀진다. 그러나, 여전히 장애대상 프로그램에선 장애인하면 떠오르는 도움, 극복, 재활 등의 감성적 잣대가 묻어낸 간판들을 달고 있다. 그동안 이런 프로그램 간판들로부터 오는 장애인들의 왜곡된 이미지는 장애인을 부담스런 존재로 잘못된 시각을 형성시킨 것 또한 사실이다. 따라서 온정주의적 관점에서 벗어나 툭툭 튀고, 코너 명만 들어도 누구든 내용을 짐작 할 수 있는 실질적이고, 신선한 프로그램 명과 코너 명들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3. 신중치 못한 용어 선택과 말투는 여전히 풀어야 될 과제이다.

장애를 가지고 있는 강원래가 MC로 출연하는 이상 시청자들은 비장애인 아나운서 때와는 다른 무언가가 있을 것이라는 기대치가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프로그램에서 자주 보여지는 강원래의 잘못된 용어선택은 실망감을 안겨주고 있다. 한 예로, '리프트' 라는 단어를 몰라 당황하며 '휠체어를 통체로 올리는 기계' 라고 말한다. 이런 실수는 MC인 강원래 뿐만이 아니라 프로그램 전체에 만연된 관습처럼 보인다. 주 시청 대상에 관련된 올바른 용어선택은 방송의 기본이며 시청자에 대한 존중인 것이다. 따라서, 제작진의 세심함이 절실히 필요한 부분이다.

4. 방송에서 장애인 출연자의 적극적이고 주체적인 모습을 기대한다.

무겁고 진지해야한다는 장애관련 프로그램의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유머 있고 에너지가 넘치는 강원래의 본연의 캐릭터를 프로그램 전체에 녹여낼 수 있어야 한다. 또한, 프로그램 안에서 고정패널들의 적극적인 질문과 코너 내에서 존재감을 느낄 수 있는 주체적인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럼으로써 프로그램의 재미

와 장애인에 대한 새로운 인식들을 전달해주는 유익한 프로그램으로 거듭 나갈 바란다.

외국 프로그램과 우리나라 프로그램에서의 장애인을 바라보는 시선의 차이

백수정 (서울YMCA 어린이영상문화연구회 미디어교육 팀장)

1) 어린이 프로그램

아직도 우리의 사회에서는 장애인이나 소외 계층에 대한 편견 또는 거부감을 가진 사람들이 상당수 있다. 편견들을 없애는 역할에는 어느 프로그램보다도 어린이 프로그램에서 앞장 서야한다. 왜냐하면, 사회의 현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아무 거리낌없이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시기가 어린시기가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외국의 몇몇 프로그램의 경우 이를 극복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장애를 가진 어린이를 직접 출연시키고, 활동에서의 주요 참여자로 등장시키는 등 화면 전체에는 출연한 모든 어린이들이 함께 즐기며 문제를 해결해 가는 모습을 담아내고 있다. 이를 통해 어린이들에게 장애아도 우리 주변의 친구 가운데 하나라는 사실을 자연스럽게 보여 주는 것이기도 하다. 또한 다름의 인식을 차별로 받아들이지 않도록 하는 시선 교육을 바탕으로 제작하고 있다. 이런 시도가 자라면서 생겨날 수 있는 "다름"에 대한 편견을 제거하는데 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인식에서 비롯됐다는 데 의미가 있다. 이는 어린이 프로그램 전반에서 나타나는 일상성을 가지고 있다는 데에 또다른 의미가 있다. 반면, 2000년까지는 우리 나라 어린이 프로그램에서는 이러한 배려를 찾아볼 수 없었다. 왜냐하면 어린이 프로그램에 장

1998년 장애인주간신문에서 통합교육 → 2000년 보리시 → EBS ... 권여지님 정도.

애아가 나오면 어둡고 어린이들이 무서워한다는 우려 어린 시선 때문이었다고 한다. 하지만 요즘 들어, EBS의 <딩동댕 유치원>이나 <방귀대장 뽕뽕이>에서는 장애아와 비장애아의 통합교육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딩동댕 유치원>의 경우, 기획의도에 "장애인 어린이와 함께 하면서 장애아와 비장애아와의 거리를 좁히고, 어려서부터 장애인과의 자연스러운 만남의 공간을 보여준다"고 명확히 명시되어 있으며, <방귀대장 뽕뽕이>는 이미 놀이라는 매개체를 통해 아주 자연스럽게 통합교육(장애아와 비장애아)을 시도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은 장애아들이 출연한다는 의미에 불과하다.

2002. ↓
2004. ↓
없어졌다 (신대)
↓
이제부터가 기회를 없앴

이젠, 다양한 어린이관 등장

2) 일반 프로그램 및 영화.

외국 영화나 TV 프로그램에서 장애인을 조명할 때에는 장애인을 개인으로써 독립된 한 인간, 그런데 비장애인과 능력차이를 사회적으로 인정, 주위의 시선은 또 다른 가능성과 가치를 가지고 태어났다는 시각에서 조명된다. 그래서 사회 공동의 문제로써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해 주어야 한다는 인식에서 접근된다. 전체적 스토리는 약간은 계도적이고 지나치게 휴머니즘적이지만 이것을 아우를 만큼의 인간에 대한 탐구가 뒤따를 수 있다. ex) 포레스트 검프, 아임 샘 등. 또 다른 시선은 보다 직설적이고 솔직한 담론 위주의 작품들이다. 이런 류의 작품에서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자신의 장애를 인정할 때, 당당해 질 수 있고 남도 나를 인정해 줄 수 있다는 약간의 냉정해 보일 수 있는 시선이다. 그런데, 나는 이런 냉정함이 오히려 진실해 보이고 공감이 된다. 그러면서도 보고나면 후련해지는 느낌, 왜일까? 그건 아마 영화 속 혹은 프로그램 속 그들이 나이기 때문일 것이다.(The way they see you, 프랑스) 나레이션으로 유추된 주인공의 어려움에 대한 이야기 혹은 음악으로 대변된 주인공의 감정들이 때론 거것으로 보여서 채널을 돌릴 때가 있다. 한편 얼마 전에 덴마크의 <My new friend>라는

방송 장애인들... 장애인들은 강하게 보여야 한다.는 규정이었다

다큐를 보았다. 그 다큐를 보면서 장애인에 대한 또 하나의 시선을 발견할 수 있었다. 바로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사람들"이었다. 장애인이 주인공이 아닌 프로그램에서 몇초에 불과했지만 장애인과 비장애인들이 함께 농구를 하며 즐겁게 식사하는 장면을 자연스럽게 삽입시킨 것이다. 자연히 이를 보는 시청자의 잠재의식 속엔 장애인은 바로 우리일상에서 함께 사는 이웃으로 인식 될 가능성이 높아 보였다. 이것이 바로 TV나 대중매체에서 해야 할 역할이 아닐까 되새김해 본 대목이다.

반면, 우리의 대중매체, 특히 TV에서 바라보는 장애인의 시선은 어떨까? 기본적으로 방송에서의 장애인은 신체적이거나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어 타인에게 의존적 존재, 특히, 부모나 가족의 책임으로 돌려지는 것이 보통이다. 그래서 나약하고 부담스런 존재로, 또는 사회생활에서 가능성 보다는 장애를 부각시켜 적선식의 도움이 필요한 존재로써 인식의 시선을 고정시키고 있다. 물론, 몇몇 다큐나 코너들에서 이런 인식들을 타파해 보려는 노력들은 보이지만, 아직은 방송사의 관심과 인식에선 제자리걸음을 면치 못하고 있다. 한 예로, 장애인을 다룬 대부분의 프로그램 내용은 한 개인을 중심으로 한 '인간시대'류이다. 과거 장애인들의 어두운 모습을 부각시키던 것을 지양하고 최근에는 비교적 밝은 모습을 보여주려고 애쓴 흔적들이 보여지긴 하지만 아직도 동정을 유발하는 차원에서 머무는 경우가 많다. 무엇보다 거기로부터 사회적, 조직적인 반향을 만들어내기까지는 역부족이다. 예전에 비해 방송에서 장애인을 볼 수 있는 기회는 많아진 듯 하다. 그러나 진실로 장애인들이 원하는 실제의 이미지들은 찾아보기 힘들다. 코미디나 오락프로그램은 웃음의 한 일부로 짜집기하여 희화화시킨 경우가 많고, 드라마에선 사회적으로 고립된 이미지, 가족의 행복에 방해요소, 또는 의존적인 존재 등 많은 부분 외부의 잣대로 왜곡시켜 이미지를 전달해 주고 있다. 특히, 사전에 장애에 대한 충분한 연구 없이 제작되어 실제의 그들의 행동과 사뭇 다른 형태로 보여지고 있다. 한편, 장애인프로그램이나 행사는 상업적 논리로 방송에서 사라지

대에 위치해 놓고 있다. 예를 들어, 지난 9월17일부터 28일까지 11일간 그리스의 아테네에서 장애인올림픽이 열렸다. 장애인올림픽 또한 일반올림픽 못지 않은 규모로서 무려 125개국이나 참여하는 세계적인 행사이다. 예년에 비해 나아지긴 했지만, 나는 그 기간동안 KBS2에서 아침 일찍 녹화 방영한 개막식과 한낮에 1시간 정도 하는 주요 경기 방송을 제외하고는 TV에서 소식을 접한 적이 별로 없다. 스포츠 뉴스는 개막식 당일날도 국내 프로야구 소식들로 채워졌다. 바로 그 얼마 전 일반올림픽기간에 각 방송사가 24시간 치열하게 보도전쟁을 치른 것과는 너무나도 대조적인 태도였다. 방송은 현실을 반영 한다는 말도 있다. 현재 우리 사회를 들여다보면, 신기술로 쉽고 빨리 처리해야 하는 신속성, 하나의 관심사에 모든 사람들이 집중해야 하는 유행성, 사회로부터 부여받은 소속성, 이 모두를 수용하는 인간들이 살아가기 편한 세상이다. 이러한 현실에서 진정한 휴머니즘의 의미를 방송에서 찾기란 쉽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방송은 공공의 재산이며, 사회현상 그 책임 또한 일정부분 져야 할 의무가 있다. 즉, 인간 중심의 방송, 그 속에서 다양한 계층을 당사자 주의로 진실된 내용전달의 역할이 무엇보다 필요한 때이다.

토론회를 마치며...

나는 방송에서의 인권적 접근에 대해 스페인에서 본 한 TV다큐에서 발견할 수 있었다. 애플타이 한눈에 보이는 광장이었는데, 그 한가운데서 한 흑인여자가 음악에 맞춰 춤을 추고 있는 장면이 zoom되며 그녀의 아름다운 몸짓과 주위에 관객들이 그 몸짓의 언어에 도취되어 숨을 죽이며 감상하는 장면이 바로 연결되었다. 그 때, 내 눈에 들어온 것은 그녀의 왼쪽 얼굴이었다. 화상의 흔적으로, 보기에 도렵할 정도로 일그러져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었다. 하지만 그녀의 춤은 정말 감동적이었다. 그곳에 있던 사람들도 나와 똑같은 감동이었는지 그 자리를 쉽사리 떠나지 못했다. 그리고 함께 어울려 춤을 즐기는 춤사위로 화면을 마무리한다. 이

무예의 자신의 얼굴을 드러낼 수 있는 당당함과 예술적 수준을 인정해주는 사람들, 그 속에서 함께 어울려 즐기는 사람들에게서 인간다움의 가치를 느낄 수 있었다. 이렇게 자신을 당당하게 드러낼 수 있는 사회, 그들의 가치를 인정하는 문화, 다름을 인정하고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여유로운 삶을 조명해 줄 수 있는 방송이야말로 인간중심의 방송의 진정한 모습일 것이다. 이 다큐는 바로 그런 방송의 지향점을 제시해주고 그 가치의 판단은 시청자의 몫으로 돌려지는 구성과 연출이었다. 다른 프로그램들과는 달리 나레이션과 효과음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저 현장 사람들의 감탄사와 음악소리들만으로 구성된 작품이었다. 하지만 오히려 진실해 보였고, 그 진실성에 감동스러웠다. 조금은 아마추어적 발상들이 보였지만, 감성 매체인 TV에서 접근되기 어려운 작품으로 기억된다. 이러한 휴머니즘 다큐를 우리나라의 인간극장이나 장애인 특집 다큐로 만들어졌다고 상상해 보자. 아마도 그녀의 얼굴을 클로즈업시키면서 그가 화상 당했던 과거에 대해 음악과 함께 나레이션으로 설명해주고 그의 춤을 감상하는 사람들의 인터뷰를 넣고, 그녀가 자신의 장애를 춤으로 극복했다는 닐슨의 나레이션으로 마무리되지 않았을까? 이 과정에서 시청자들은 한 인간이 진정으로 추구하는 예술가적 삶은 보지 못하고 그녀의 장애에 대한 연민과 어려움을 극복한 인간 승리자의 단편적인 이미지들로 남을 것이다. 그리고 그녀에게 춤의 의미를 재할로써 인식시키지 않았을까? TV는 감성적 잣대로 시청자의 눈을 살짝 가려주고 있는 것이다. 즉, 우리나라의 TV매체는 정보는 많지만 그것을 당사자의 입장에서 해석해 주기보단 여러 기술을 사용해 시청자의 눈길을 끄는 방향으로 풀어간다. 그 속에서 피해를 보는 것은 사회적 약자, 그 중에도 장애인의 인권인 것이다. 좀더 근본적으로 보면, 장애인을 사회적 약자의 이미지로 각인 시키고 있는 것 또한 대중매체라 할 수 있다.

장애인관련 프로그램의 현황 및 문제점

- **배제의 단계:** 아예 등장시키지 않는다. (본인)
- **등장은 하지만 부정적 이미지 - 전소. 전의 단계.**
- **조정의 단계:** 진실에 가까운 추구. 박웅진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 연구원)
- **중심의 단계:** 인간 그 자체로 인정.

I. 장애인관련 프로그램의 현황 및 문제점

1. 편성의 문제

먼저 편성량의 문제와 관련, 평상시의 정기편성에는 TV, 라디오를 막론하고 장애인을 대상(for)으로 하는 것도, 장애인이 등장(with)하는 것도, 장애인에 의해(by) 만들어지는 것도 절대적으로 부족했다. 그러나 장애인의 날 등 특별(계기편성)에는 수많은 장애인 관련 프로그램이 이벤트성으로 쏟아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편성량 뿐만 아니라 편성시간도 문제였다. 장애인 대상의 프로그램은 명분과 형식으로 '생색내기'식으로 운영되고 있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4월 20일 - 신학기 방송 / 장애인 등임폭은 거의 드러나지 X.

2. 표현의 문제

뉴스, 드라마, 오락 프로그램과 어린이 프로그램, 광고 등 장애인이 등장하는 경우에 있어서의 장애인 표현방식을 분석해본 결과 이분법적인 접근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에겐 정보부족 → 정부정책이나 기기사용방법 등. 관리는 잘 수 있다.

동정 : 인간승리

장애인의 불행한 모습들을 의도적으로 부각시킴으로써 비장애인들에게 "저 사람 참 불쌍하다"는 동정심을 유발시키고, 장애인을 마치 다른 사람으로부터의 도움 없이는 절대 살아갈 수 없는 존재로 표현하는 시혜적 관점에서의 접근방식이 상당수 눈에 띄었다. 반면, 장애를 극복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지나친 미화와 영웅시를 통해 "저 사람 참 대단하다"라는 식의 메시지에 동의하도록 시청자들에게 강요하는 인간승리적인 관점에서의 접근방식이 지배적이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장애인이라는 인식이 필요하다.'

3. 장애인의 방송접근권에 대한 문제

과거에 비해 장애인의 방송접근권에 대한 사회적 인식도 상당 부분 개선되고, 제도적인 배려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는 것은 분명 고무적인 일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대부분의 장애인들은 여전히 많은 비용을 치러야만 비장애인들이 누리는 편리함의 일부를 나누어 가질 수 있게 된다. 수화방송은 거의 없다시피 한 실정이고, 자막방송도 높은 비율로 제작되지 않고 있으며, 수신기를 만만치 않은 가격이다. 그나마 장애아동들을 위해 교육방송, 어린이 프로그램 등에는 자막표기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그렇지 않다. 많이 나아졌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방송의 문턱은 높기만 하다. 소외감도 여전히 있다. 대사가 나오지 않는 부분에 대한 내용을 해설자가 음성으로 설명해주는 '영상해설'방송이 시범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데 많은 장애인들은 DVS가 무엇인 지도 모른 채 살아가고 있다. 장애인 방송접근권에 우리 사회의 욕구는 숨이 가쁘게 터져 나오고 있는데 아직도 넘어야 할 산들조차 다 보이지 않고 있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다.

II.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의 탐색

1. 상업성을 견제하기 위한 정책적 배려 : 법적 강제성 부과와 함께 실질적인 자금지원

장애인 등 소수계층 대상 프로그램은 결코 대중성이 있는 프로그램은 아니다. 그래서 앞서 지적한 것처럼 시장논리에 맡기면 자동으로 도태되고 만다. 공영방송 체제가 확립되어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공익적 목적의 달성을 위해 이러한 소외집단을 위한 프로그램이 반드시 필요하므로, 이를 위한 제도적 보완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한다.

먼저 선언적인 의미에 머물고 있는 장애인 관련 법조항에 강력한 법적 구속력을 부여하여, 방송사들이 장애인 대상 프로그램의 편성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법에 명시된 장애인 보호 관련 규정을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올 4월부터 휠체어 리프트 등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공공기관에 대해 최고 3,000만원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는 것처럼 고액의 벌금을 물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와 같은 강력한 법시행에 앞서 방송위원회 등은 장애인 방송 접근권 보장을 위한 방송발전기금 배당액을 확대편성 혹은 전용하여 현재 자막수신기 보급 사업 등에 국한되고 있는 실질적인 자금지원을 방송사측에도 상당액수 지원함으로써 장애인 관련 시청보조장치의 개발 및 제작에 방송사업자들이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주어야 한다.

2. 채널 세분화(segmentation)

다매체·다채널 시대로 들어섬에 따라 이제 장애인에게 도달가능한 채널의 수는 무한정으로 늘어갈 것이다. 과거에는 장애인 방송 캐리어채널이 지상파 TV,

라디오 등 올드미디어에 국한되었지만, 이제 다양한 종류의 뉴미디어가 등장한 만큼 효과적인 프로그램 전달을 위한 채널 세분화 전략이 수립될 필요가 있다.

1) NARROWcasting

소외층 대상 프로그램의 방송과 관련하여서는 사실 지상파 방송보다 종합유선방송, 위성방송, 인터넷방송을 포함한 뉴미디어를 이용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다. 왜냐하면 뉴미디어는 특수한 표적 시청자층을 대상으로 전문편성을 하기에 적합한 매체이기 때문이며, 양방향성을 위주로 매체특성으로 인해 방송사와 시청자간에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을 가능케 해줄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채널이 한정된 올드미디어에 비해 넉넉한 주파수대를 보유하고 있어 장애인 등 소수계층을 위한 독립방송의 설립에 있어서도 유리한 측면이 많다. 소규모 독립채널은 장애인들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제공하고 그들이 사회로부터 격리되지 않도록 그들의 기쁨과 애환을 나눌 수 있는 '정신적인 공간'을 제공하는 '커뮤니티'의 역할도 할 수 있다.

장애인을 위한 인터넷 방송은 이미 시작되었다. 청각장애인들의 언어인 '수화'를 인터넷에서 동영상으로 무료서비스하는 '수화방송국'(www.suwha.net)은 2000년 7월 개국하였으며, 2001년 1월에는 청각장애인을 위한 텍스트 및 동화상, 시각장애인을 위한 오디오방식을 병행하게 될 '사랑의 소리 인터넷방송'(www.voc.or.kr)이 개국하였다. '사랑의 소리 인터넷 방송'은 1995년 서강대와 KBS가 공동으로 운영하던 라디오방송인 '사랑의 소리방송'의 후신으로, god와 핑클 등 연예 스타들의 소식과 두 손을 잃고도 컴퓨터 박사가 된 인물 스토리, 인기 가요를 틀어주는 코너, 고민을 상담해주는 메뉴 등으로 장애인들에게 '인기만점'이라고 한다. 또한 농아인을 위한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농아사회정보원의 농아인 전문 인터넷 방송 '데프TV'(www.deaf.tv)에서는 농아인들이 출연하여 수화로 이야기를 나누며,

현재는 뉴스, 칼럼, 문화 프로그램 등에 그 영역이 국한되어 있지만 앞으로는 재정을 확충하여 장애인을 위한 드라마 등으로 장르를 넓혀갈 계획이라고 한다. '데프TV'는 2000년 10월 개국했으며, 현재 회원수는 6천여명에 이르고 있으며, 매달 1천여명의 신규회원이 가입할 정도로 활기를 띠고 있다는 소식이다. 비장애인들을 위해 수화를 따라 배울 수 있는 코너와 함께 농아인을 위해 컴퓨터 용어를 직접 수화로 만들어 보급하는 일도 병행하고 있다.

올해 말 시행예정이었던 위성방송에도 장애인을 위한 채널이 운영될 예정이다. 지난 7월 25일 한국디지털위성방송 채널구성위원회는 '사랑의 채널' 사업자로 노인 및 장애인 대상 건강채널인 건강위성방송을 선정하였다고 발표했다.

한편 지난 11월 18일 발표된 방송위원회의 '21세기 방송정책' 보고서에서는 기존의 AM채널을 이용한 소수계층 대상의 독립방송국 운영을 제안한 바 있다. 즉, FM방송을 종합편성채널로 운영하여 라디오 방송을 FM위주로 재편하고, AM방송은 소외계층, 저소득층, 장애인 등 소수계층을 위한 특수방송목적의 수용자복지방송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2) BROADCASTING

뉴미디어를 이용한 장애인 대상 독립방송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 기간동안 막강한 영향력을 보유하고 있을 지상파 방송의 위상을 고려해볼 때, 올드미디어를 이용한 장애인 대상 프로그램 방송은 여전히 중요하다. NARROWcasting의 여러 장점에도 불구하고 BROADCASTING이 지속적으로 요구되는 몇 가지 이유를 살펴보자.

먼저 지상파 방송은 그 광파(廣播)성, 편재(遍在)성으로 인해 즉각적인 여론형성에 용이하다. 올드미디어의 장애인 등 소외계층을 위한 프로그램은 비록 우리 사회의 소수자들을 위해 제작된다고 할지라도 결코 소수만이 시청하지 않고 있다는

점은 매우 중요한 사실이다. 즉, 지상파 방송을 이용한 소외계층 대상 프로그램의 편성은 소외집단의 이해와 요구를 대변하는 프로그램을 영향력 있는 매체를 송출함으로써 이들의 사회문화적 요구를 수용한다는 일차적 목적외에도 기타의 사회적 범주에 속하는 사람들(main-streamer)로 하여금 소외계층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기 위한 목적도 병존하고 있다는 점이 고려되어야 한다.

두 번째 종합유선방송, 위성방송 등을 시청하기 위한 추가비용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함이다. 뉴미디어는 편리한 만큼 그 이용에 적지 않은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그러나 지상파의 경우, 장애인들에게 시청료를 면제해주는 등 방송접근비용이 거의 들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다. 소외계층의 경우, 사회경제적으로도 비교적 열세의 위치에 놓여있는 사람들이기 많기 때문에 비장애인 시청자들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은 부분이 그들에게는 많은 부담으로 다가갈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3) 공영방송의 역할 기대

소외계층을 위한 프로그램은 우선 공영방송을 통해 적극적으로 권장되어야 한다. 공영방송, 특히 KBS1은 공익을 위한 프로그램 편성을 위해 시장에서의 경제적 압력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시청자들에게 직접 수신료를 징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에 준하여 운영되고 있다. 그러므로 공익의 관점에서 '필요'에 해당하는 소수 대상 프로그램은 우선적으로 KBS1에 의해 제작방송되어야 한다. 이는 수신료를 납부하고 있는 시청자들과의 약속의 일부이며, 동시에 다른 채널들과의 관계속에서도 KBS1이 차지해야 할 마땅한 자리이다. KBS는 이를 위해 적어도 1TV의 경우, 종합편성 정책을 다소 축소하고, 소외계층을 위한 전문편성을 늘릴 것을 기대해 본다. 이와 함께 장애인 대상 프로그램의 발전을 위한 부단한 연구개발도 병행해야 한다. 1998년 4월에 제작한 KBS의 <청각장애인을 위한 FM작은음악회>는 장

애인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 편성에 새로운 도전기록을 남긴 긍정적인 사례로 인정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의 진행을 위해 제작진은 일반적인 음악회보다 훨씬 증폭시킨 음향을 준비하고, 조명에는 많은 신경을 썼다고 한다. 들을 수 없는 '청중'들을 위해서는 수화통역사가 노래가사를 전했다. 발상의 전환이 감동적인 프로그램을 탄생시켰다. SBS가 장애인의 날을 맞아 방송한 '사랑의 릴레이'도 장애인 대상 프로그램의 효율을 높여줄 수 있는 새로운 편성전략으로 평가받을 만하다. 지난 4월 7일 밤, SBS는 <그것이 알고싶다>를 통해 '그들만의 키 작은 세상, 147.5cm의 왜소증 아이들'이란 제목으로 왜소증을 앓고 있는 키 작은 아이들의 이야기를 방송했다. 약 한 달 뒤 키 작은 사람들의 이야기는 다시 장애인의 날 특집방송으로 방송되었고, 키 작은 사람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주고 싶다는 시청자들의 요구는 4월 20일 <사랑의 릴레이-희귀병 환자에게 희망을> 특별모금 생방송을 가능하게 했다. 시사고발 프로그램을 통해 문제를 제기하고, 이를 장애인의 날을 맞아 재방송함으로써 희귀병에 대한 사회의 여론을 환기시켜 모금방송과 연계시킨 편성전략은 많은 시청자들의 참여를 유도하여 왜소증 장애인들과 희귀병 환자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전달해준 훌륭한 사례로 평가되고 있다.

방송모니터 토론회 평가서

"방송에서 나타난 장애인권 현실과 권리확보를 위한 토론회"

1부- 장애인 시청자 주권찾기, 모니터운동의 전망

· 주제발제1- 여성시청자운동에서 바라본 방송의 변화

강혜란(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 주제발제2- 장애왜곡 및 편파보도에 대한 장애계의 대응과 언론의 활용

박숙경(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인권국)

2부- 장애인의 눈으로 방송 다시 보기

· 주제발제3- 장애인권적 관점에서 바라본 방송 : 모니터링 사례를 중심으로
이태준, 김주영(장애우방송모니터)

· 종합토론

토론회 내용

1. 주제발제1의 내용은 만족스러우셨습니까?

매우 만족 만족 보통 매우 불만족 불만족

2. 주제발제2의 내용은 만족스러우셨습니까?

매우 만족 만족 보통 매우 불만족 불만족

3. 주제발제3의 내용은 만족스러우셨습니까?

매우 만족 만족 보통 매우 불만족 불만족

4. 자료집 내용의 적절함이나 분량이 적당하며, 내용이 어렵지는 않았습니까?

적당하다 보통 적당하지 않다 (이유:)

5. 기타 다루어졌으면 하는 내용이 있다면 적어주세요.

